夕刊

# 朝鮮日報

本紙特價十二錢
發行人 方應謨
編輯人 [illegible]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十一番地 株式會社朝鮮日報社

## 社說
## 回顧一年
### 主로朝鮮關係의事象

一

一九三三年은 오날로써 永遠히 作別하려한다。今年內의 國際政局의 趨勢、世界經濟의 動向에關하야는 지난數日間에 回顧論評한바 잇섯거니와 섯달금음날인 오날에는 朝鮮의 過去一年을 回顧하기로한다。

日本에잇서서는 一九三三年中 國聯脫退를 爲始하야 滿洲國의發展、日本商品의 積極的海外進出等 두렷한 大事件、大現象이 去卄히 만치마는 朝鮮에잇서서는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直接外國과 接觸할 수업는 處地에 잇스니 만치 그方面은 勿論 이러타할 무엇이 업스며 朝鮮內的으로보드래도 지난 一年은 極히 平凡한 一年으로 누구나 다가티 異口同聲으로 指摘할만한 大事實、大現象은 잇는듯십지안타。

二

今年內에 新聞地上에 第一만히 報道된記事는 共産黨事件이엿다。間島共産黨事件은 被告數가 實로 二百六十餘名에達하얏고 死刑言渡바든者만도 二十二名이라는 多數에達한大事件으로 朝鮮歷史上에 稀有한事件일뿐아니라 全世界的으로보드래도 決코 尋常한일이아니다。이외에 太平洋勞組事件 定平農組事件等이 繼續하야 審判을 바덧스며 더욱이 一般社會에 적지안은 쇽크를 준事件은 慶南赤色教員事件이라 하겟다。이事件은 被告의 數로는 間共事件其他에 比할것이 아니나 初等學校現職教員을 中心으로左翼運動의 組織的展開를 보게된것은 朝鮮思想運動史上에 初有의 일뿐안이라 歐米에잇서서도 想像도못할만한 珍珍事라할것이다。

三

今年中에 朝鮮에잇서서 가장意味깁흔 歷史的收穫은 한글綴字法統一案의 完成이니 世宗大王께서 한글을頒布하신지 四百八十七年後인 今日에와서야 겨우 우리글의 綴字法의統一을 보게되엿다는것은 民族的恥辱을 말하는것이어니와 이와가티 長久한 歲月을두고 整理되지못하엿든 한글綴字法이 인제統一되엿스니만치 一九三三年은 더욱이 意味잇는 해로 볼수잇는것이다。勿論 이번 朝鮮語學會의 統一案을 完全無缺한案이라고할는지는 疑問이나 이統一案이完成하기까지 同學會는 三個年의 時日을거처 一百二十五回의 會議를 거듭하야생겨난 結晶임으로 이것을 가장理想에가까운案으로 보지안을수업스며 設或 多少의 缺點이잇다하드래도 이것이混亂無政府狀態에잇던 한글整理의 첫試驗으로 그効果影響이클것은 贅言할必要가업다。

四

經濟界로보아서는 世界的恐慌이深刻한이때에 比較的好況以外의 景氣를갓게되엿다。그原因은 勿論 인풀레政策의本格化、匯價暴落、未曾有의低金利等에 基因하는 것이지마는 朝鮮에잇서서는 [illegible] 初秋의米價高以外에 特別히 今年에 드러와金價의暴騰으로金鑛業이 크게 繁榮하여진 다는 事實이다。그러나 如上의 事實은決코 朝鮮人經濟生活의 積極的向上을 말하는것이안인은勿論、大勢的衰退潮流는 依然히 가튼方向으로 흘너가나니 今年中自作農及 小作農의 自作農이 小作農으로轉落되는 現象이 더욱甚하여간 事實은 此를如實히 雄辯하고잇는 것이다。年中行事가든 天災地變은 今年도 例外에 둘지못하고 七月의三南水災는 朝夕을 근심하게된 地方住民의게 一層더 飢寒을 威脅하게되엿다。

五

以上以外에 過去一年間의朝鮮思想界로보면 그야말로아모보 [illegible] 에關한[illegible] 는如何튼 一九三三年中에는 以上別例의 共産黨公判以外에는 表面에나선아모運動도업섯다。이것은左翼運動에 잇서서뿐아니라 民族運動에잇서서 亦然하엿다。新幹會의 解消를契機로 朝鮮社會의潮流는 어데로 가는지 그方向을알수업슬만큼 되엿다。이와가티 表面運動이업시 地下運動(萬若잇다면)으로 潛行하는것이 朝鮮을爲하야 有利할것인가? 이것이 새해에생각할 한가지問題일까 한다。

# 蔣、胡의合作成立
# 國內整理를斷行
## 政權을文武에兩分하야分掌
## 遂上海會議를開催?

蔣介石氏(右)・胡漢民氏(左)

【上海通信】西南派의巨頭로서그態度가注目되든胡漢民氏는 孫科氏와同道或은前後하야 上海에來하야上海會議를開催한다는觀測이마침내 確實視되게되엿다 卽中央側의 福建空襲에依한斷平한態度는兩派側의 中央과의妥協合作機運을濃厚히하게된것은明瞭하니이때문에 二十七日의公債市場은去月上旬以來의局面을示하얏다 開催하건대胡漢民氏도 孫科氏의斡旋에依하야 蔣介石氏와의間에 完全한諒解가成立하야 이에兩派의合作에依하야 國內의大整理를斷行하기로 原則的決定을보앗다한다 胡漢民氏는中國危急救亡의際에 一身의安逸을求할것이아니라하야 政治로 兩國을要하고저 出廬를決意한것으로 政權을文武로二分하야 文治方面을胡漢民氏가擧하고 軍事方面을 蔣介石氏에게委하야 共産軍의討伐을 行케할方針으로 汪兆銘氏의下野는 胡漢民氏出廬의交換條件으로되엿다

## 黃郛何應欽兩氏
## 北中政務整理
### 委員大會開催

【電通北平二十九日發】確報에依하면 黃郛、何應欽兩氏는 來一月四日北中政務整理委員會의 大會를開하고各將領의連絡親密化를圖하기로되엿다右는 一、學良의歸國을 압두고 北將領의擡頭를防止할것 一、宋哲元이最近劉桂堂 其他의 雜軍을收容하야 勢力을 得하야온것 等에對하야 北中各將領의 結束을圖할必要에迫한내문이다

## 南臺不爆擊을
### 國府에保障要求
#### 福州領事團에서

【電通上海二十九日發】福州爆擊에對하야 只今까지의 形便으로日本人 臺灣人 其他外國人에對한 直接被害는 업스나 同地領事團에서는 事態의 惡化를두려워하야 二十七日 領事團會議를 開하고 只今까지의 爆彈은 飛行場 中國街에限하얏스나 空襲이 南台의外人居留地에 行치안는다고는保障할수업다 最近 人民政府特히 軍本營이 南台에 移하야 一層 危險이 增大하얏슴으로 南台附近에는 空襲을하지안는 保障을 南京政府에 求하기로 決議하얏다

# 共軍活動尖銳化
## 南昌附近으로進擊
### 戒嚴令布告嚴重警戒

【聯合上海二十九日發】漢口來電에依하면 共産軍第十六軍은二十六日 樂化(南昌에서四十中里의地點)生米鎭(南昌을距하기三十中里)附近에 進擊하야와서 樂化는 電話線을切斷되엇스나 工擊退하고 生米鎭에서는 交戰一晝夜에 亘한後 겨우이것을 擊退하얏다 南昌市內는 目下 戒嚴令을布하고 特히 福建軍의 攻略에 對한 警戒는嚴重하야 每日 中央軍飛行機가 南昌上空을飛行하야 偵察을行하고잇다 또重慶來電에依하면 共産軍의巨頭賀龍은 湖北共産軍을 集合하야 四川侵入을 計劃하고잇는듯하며이에來應을 侵하야 鄖城은危險에瀕하얏스므로 廣陵에서應援部隊가 同方面에 急行하얏다 其他 雪隹九州의 各部도 應援을許하야왓스므로 同方面의共産軍의 活躍은依然 尖銳化하야온模樣이다

【電通上海二十九日發】當地官憲에達한 情報에依하면江西에共産軍 第十六軍의 一部는 二十六日 南昌의 西南方 僅히四十中里의 生米에襲來하야 中央軍과 交戰一晝夜에亘하야 겨우擊退되엿는데南昌은目下戒嚴令이布하야 福建軍의北上과共軍에對하야嚴重警戒하야每日偵察機도飛來하얏다한다

# 內蒙古의自治制
## 黃紹雄氏案을可決
### 臨時行政院會議에서

【電通南京廿九日發】國民政府行政院은紛糾를보고잇는蒙古 西藏 新疆三地方의獨立問題에 關하야 臨時行政院會議를開하고協議한結果 黃紹雄氏의提案으로 各部長間에研究되든內蒙古의指導權은 各部長의意見도大略原案에贊成이므로 自治制의一部分에修正을加하야 黃紹雄氏의原案대로可決하고正式으로行政院會議에부처 來春일즉實行되게되엿다 그리고新疆問題에關하야는地方의視察을終了하고 最近歸來한羅文幹氏의報告를求한후에協議하기로되어 兩議問題는이에成案을得하지못하얏다

# 藍衣社의暗躍活潑
## 福建要人暗殺團組織
## 獨立政府刻刻不安

【電通東京電話】二十九日確當한方面에의 入電에依하면福建方面에서는 蔣介石系의藍衣社의 活動이甚히活潑하게되어廈門、泉州等의 各地에潛入한藍衣社員의數는 百三十餘名에達하야 各種의策謀를 進繼하는바 特히團員三十八名으로서組織한 暗殺團은 福建人民政府要人의 暗殺을目的으로 하고 行動이漸次 活潑하게되는中이다 一方安溪、永春附近의土着軍도反人民政府의旗幟를 揭하고 福建獨立軍의氣勢를阻止하고서 後方擾亂의手段을取하야各地에서掠奪을하는中이라하는바中央軍飛行隊의爆擊과同時에 相當히人民政府側에脅威를與하고잇다 이에依하야蔣介石은 福建을政治的解決에入하게하는內心으로觀測되는바 漳州附近에서는 中央軍의爆擊과藍衣社員의活躍이奏功하야、人民에게 多大한不安을與하야廈門附近을目標로 避難하는者가續出하는形便으로 福建獨立政府의狀勢는 目下刻刻不安에傾하는中이라한다

# 루마니아首相殞歿
## 怪漢이拳銃으로狙擊
## 犯人은直時逮捕

【電通부카레스트廿九日發】루마니아首相듀카氏는 二十九日 부카레스트의 西方七十哩의 시나이아로 首相은政府 政務官인 코스페스크氏를同伴하고 皇帝카로르陛下를訪問하고 歸途 시나이아驛에서 汽車를 待하고잇슨즉 午後十時二十分頃 突然一名의怪漢이 나타나 最初 手榴彈을投하야 同伴한코스페스크氏에게 重傷을負케하고 繼續하야 피스톨을 亂射하야 首相에게 致命傷을 與하야 首相은 그자리에서 卽死케 하얏다 犯人은 곳逮捕하야 嚴重한 取調를受하얏는데 最近 非合法手段으로써 政府顚覆을 企圖하는 「아이앙가드」一派의 所爲라고 觀測되며 아즉 犯人은 이름을 콘스탄치스크라고 自稱한다

# 各國의攻擊武器
# 一切廢止를提案
## 故윌손大統領誕生紀念祭에
## 루大統領 平和軍縮強調

【聯合워싱톤二十九日發】루-스벨트米國大統領은 世界大戰後의講和條約에 大活躍을한故윌손大統領의 生誕七十七回 記念祭典에臨하야 一場의演說을試하야平和와軍縮을強調하고如左한軍事要提案을行하얏다

一、世界各國은 短年月間에一切의攻擊的武器를 廢止할것을約束할것

二、各國은그武裝軍隊로하여금隣國의國境으로越케말것

三、以上의協定은 世界各國이全部이에調印한데에 비로소有効한것으로하고 그것에依하야如何한나라가侵略의具로서武器를使用하려하는 意圖를가지는가를明瞭케할것

## 顏惠慶氏
## 一月歸國?

【電通로마二十九日發】駐露中國大使 顏惠慶氏는 來一月十日 「콘테・로소」號로 伊太利의 브리디시港에서 出帆하야 歸國途上에 就하기로되엇스나 南京政府의 外交部長에 就任하기 爲함으로서 「모스코바」에는 歸任치 안는 모양이다 그리고 當分은 顏惠慶、顧維鈞及郭泰祺의 三氏는 「론돈」「파리」에 滯在하야 前者의 「론돈」會議의 善後策에 對하야 協議한다고한다

## 丁公使辭意로
## 丁鑑修氏任命

【電通新京二十九日發】駐日滿洲國公使 丁士源氏는 病으로 [illegible] 하얏스므로 [illegible] 留에 努力하얏는데 丁公使는 來三月一日을期하야 行할 滿洲國의 [illegible] 大典의 實行을압두고 公務에支障을招來할 念慮가잇서서 辭意를 飜치안코저 滿洲國政府에서도 依然駐日公使의 更迭을 斷行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後任候補者로서는 交通部長 丁鑑修 北鐵讓渡의 沈瑞麟 兩氏가 物望되는데 沈氏는 여러事情으로 辭退하고 結局丁交通部長이 新任

## 來春三、四月頃?

【電通新京二十九日發】滿洲國總理鄭孝胥氏의 訪日에關하야는 同氏의熱望에依하야 適當한 機會에實現하는模樣인데 어도 一國의總理가 國賓으로日本을訪問하는以上 그名目及時機를慎重考慮할必要가잇다하야 目下國務院及駐滿大使館其他에서研究하고잇는데 來春三、四月頃이될것으로觀測한다

# 關稅引上不當則
## 修正을考慮約束
### 澤田보아會商內容

【聯合델리二十九日發】三十日의 決定을 앞두고 突然 二十九日午後六時부터 보아商務長官官邸에서 開催된 私的會談에서 討議된 主要한問題는 雜貨問題로澤田代表는、日本及印度各地에서 亘하야 關稅引上의 影響을 微細에亘하야 調査한結果에基하야 多數한項目을 列擧하야 引上의不當히 高率한事情을 述하고 日本에서는 問題化하야 輿論이 시끄럽게되엇다 이것을緩和하려함을 希望한다하야 印度側의 再考를促하얏다 이에對하야 보아長官은 引上은 印度産業保護의 目的下에 行한것으로 日本品排斥의 意思는全然업다 따라서 引上은 絕對 保護의限度를 超越치안엇다고 印度側의 立場을說明하고 萬若에不當하다 認하는 事實이 잇스면 修正을考慮하겟다고 回答하얏다 그리고今日 午前의 專門委員會에서 研究된 日本案을 基礎로하는 年度統制法에關하야 印度側의 意嚮을 質問한바 보아 長官은 아즉充分히 審議를 하지안엇스므로 卽答하기 難하나 一兩日中에 回答하겟다고 約束하얏다 이 點에잇서서는 三十一日의 私的會談에서 回答이 될것으로 期待된다 그리고 爲替問題에 對하야서는 澤田보아 兩代表의 會談 或은 文書等에 依하야 機會잇슬 때마다 交涉을 繼續하고

## 雜貨關稅引上
## 變更要求

【聯合델리二十九日發】澤田代表는 突然 雜貨關稅引上의 變更을 要求하야 二十九日午後六時부터 私的會談을 行하얏다 右는今朝의兩國專門委員會의 結果에 基한 것으로 席上 보아長官으로부터 初年度의 綿布輸入額에 關하야 印度側의 意向을 說明하고 澤田代表는 이것을 聽取하는 同時에 最近印度政廳이 決定實施한 雜貨關稅引上의 變更을 要求하얏다

## 辭令

總督府技師 本間孝義
同 西龜三圭
京城高等工業學校教授 小山一德
陞敍高等官二等(各通) 朝鮮道立醫院醫官 野川弘
總督府技師 橫井增次
總督府道事務官 松下芳三郎
勅任官으로써待遇함(各通) 總督府判事 黑岩覺一 外十七名
陞敍高等官三等(各通) 總督府檢事 三笠幸太郎 外十五名
陞敍高等官四等(各通) 總督府判事 朴承俊 外十四名
陞敍高等官五等(各通) 朝鮮公立高等女學校教諭 鈴木純 外二十三名
陞敍高等官六等(各通) 總督府郡守 朴玄模 外十九名
陞敍高等官七等(各通) 朝鮮土木主事 江頭又治郎
陞高等官四等으로써待遇함 朝鮮土木主事 福田賢三
陞高等官五等으로써待遇함
陞高等官六等으로써待遇함 朝鮮府營林主事 逆井福次 外六名

## 議院法改正案
## 今議會에提出

【電通東京電話】前議會에서貴族院議員各派로 提出되야貴族院에서審議未了로된 議會振肅委員會의事項中 兩院議長의權限問題及 常置委員의 設置에關한 議院法改正案은 當時貴族院에서政府가 調查研究後來議會에政府案으로서 提出할것을言明하고잇는 關係上政府는 미리調查研究中이엿든바 兩院正副議長의權限問題는 宮中의關係事項에屬한다하야 政府로서는依然此에 反對하고 또常置委員의設置도 政府의 國政運用及議會審議權의 將來에不安을釀할念慮가잇슴으로 反對의意向을示하야 結局兩院에副議長二名式設置 件만에 同意하야政府는兩院에副議長二名增員을包含하는議院法改正案을 休會갓나며議會에 提出하기로되엿다

# 米穀統制法벌서
# 危機에直面狀態
## 植民地米又復問題化?

【電通東京電話】米穀統制法은 今年十一月一日 施行되엿는데 統制의 威力은 全然 發揮되지 안코 그만米價는 最低價格을 下廻한 結果 今年中의 政府의 米穀買入申込數는 二百三十七萬石에 達하야 買上價格은 五千五百萬圓에 達하얏다 그리고 이傾向이 더繼續하면 明年三月頃까지에는 總額五百萬石을 買上하게되어 이에要하는 米穀資金은 一億四千萬圓에達하고 이에季節的買上의經費、借還利子等을 加算하면 米穀年度의 二億圓의 米穀資金이 流出된다 現在米穀特別會計의資金은 四億三千萬圓임으로 一個年에 二億圓流出하는 現狀에잇서서는 이米穀資金을 增額치안는限 米穀年度로서全然 枯渴하게되어 米穀統制法은 아즉그蒼生期에잇서서 이미危機에直面한狀態이다 그리고 農林省은 이危機의由來하는所以는 統制法의趣旨가一般에徹底치 안흔뿐아니라 公定價格의 存在조차 아지못하는形便에 依하는것이다 이때문에 橋田、松村兩次官、荷見米穀部長은 統制法의趣旨徹底의目的을 東北、北海道、關東各地를巡遊하고 大活動을한 米의安定에 依한市價低落의防止에努力하는바 現在米價가 恒常公定最低價格을 下廻하는것은 臺灣、朝鮮米의 壓迫이重大原因이되엇슴에 不拘하고 統制法은 臺灣、朝鮮米에 對하야 適當한處置方策을 하지못하얏다 이에米穀統制法의 重大缺陷이 잇는셈이다 因하야 米價를公定價格의範圍에 집어너키위해서는 絕對로 臺灣朝鮮米의 統制가必要하게되엇슴으로 休會再開議會에는 當然히 本問題에 對하야 相當한 紛糾를 볼것으로 豫想한다

## 蘇聯邦中央
## 執行委員會
### 廿八日무렘린劇場서開催

【電通莫斯科二十八日發】蘇聯社會主義共和國聯邦의 中央執行委員會에서는 二十八日新築된 무렘린劇場에서 共産黨書記長스타린氏、中央執行委員會議長 카리닌氏、人民委員會議長모로토프氏等의 巨頭에 聯邦各地에서 모인 四百餘名 代表가 出席下에 盛大히 열리엇다 카리닌氏의 開會辭 다음에 모로토프氏는 一般內政及外交問題에 對하야 詳細說明한 後 反日演說을 하얏다

## 八面鋒

루마니亞首相、一學生의凶彈에 넘어젓다。原因如何는몰으기前에 피냄새나는歲末이다。

◇ 盲者人집에侵入한強盜、主人은가만두고、過客의주머니만털엇다고、薄福한強盜일가、幸運된主人이랄가。

◇ 今年一年間鑛山出願이 五千二十五件、그中에金鑛이 三千二百二十三件이라니、眞所謂黃金時代。

◇ 癸酉年도오늘하루 울엇거나 웃엇거나、往事는흘려두소。밝는날、새해에는、所願成就。

◇ 八面鋒도 今年으론 오늘뿐、지나간三百六十五日동안엣이소리저소리、妄評을多謝하옵。

今日本紙四面

痔疾はなぜ癒らぬ?

위선本書를一讀하야痔疾의本體를알라!

다시詐欺하는痔疾의成因種類・療法의檢討는附하는바의幾多의體驗談과가치스산로痔疾解消의歡喜의길을비여줌에틀님이업다

新四六判美裝七十餘頁

新聞名記入速刻左記로申入治療에의一步를잡으라

申込所 東京日本橋本町 玉置合名會社 頒布係

無代頒布

Z-55

優美館 貫鐵洞 電光五九三
十二月三十日낫부터(二日間)
送年最終週間
料金 階上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下大人二十錢 小人十錢
人生悲戀二大交響樂篇上映
大유니버살超特作全發聲 눈물에지는꽃 全十卷
名花 루-부・벨레스 名優 죤・보로스氏主演
復活(카츄샤) 全九卷
名花 루-부・벨레스 名優 죤・보로스氏 主演
大유니버살超特作全發聲
新年一月元日낫부터로비스封特作二大巨彈續封切
山岳名畫 銀山總征服 全十卷
國際的喜劇 巴里-伯林 全九卷
一月五日낫부터空中感激篇封切
戀街 시마론、海底마라손、날개의天使、도라온戀人、新世紀、滿蒙艶騎隊、國際喜劇호텔、地方檢事、모나리사의失踪、짜즈・킹
暗黑街의顏役 全十卷
조지・라프트 助演 카렌・모레이
유니버-살超特作全發聲 紙所的活劇 小說의映畫化
名匠로란드・우에스트氏大作 海賊 全九卷
지-에스라모리스氏 主演 아리손・이드씨 助演
次週封切 世人의耳目은이一篇에集中! 假面의米國
大雄篇의一時封切이아님을期待하자

朝鮮劇場 仁寺洞 電光三六一
謹賀新年
當ル三十一日封切(四日間)
本年も相變りませず御引立・御同情御來館被下ます樣御願申上ます
新興キネマ本秋超弩級現代劇
サンデー毎日三千圓懸賞 一等當選作映畫化
原作 宮本幹也 入社第一回紀念
巨匠 村田實 監督撮影 三木茂
青春街 全十二卷
入江たか子・岡田時彥・中野英治・鈴木澄子・森静子・由利健次 大鵬鳴助演 山縣直代・見明凡太郎・菅井一郎・村田宏壽・浦邊粂子・淺間健二・外オールスターキャスト
全勝主義大新興キネマがオール日本の人氣を湊つて映畫界に決定的勝利を得せる六大スター! 競演の太陽篇 初春最大の豪華版! 見よ邦畫界空前の偉容を誇りつて完全に邦畫をリードせる本邦映畫界はこの一篇によつて最高の絕頂に立つ! おゝ青春大交響樂!

中央館 永樂町一 電話三四五
十二月二十九日부터 三十一日까지三日間
新興キネマ提供 嵐寬壽郎プロ超弩級作
原作 佐々木味津三 監督 山本松男
右門捕物帖三十五番手柄 越後獅子の兄弟 十一卷
嵐寬壽郎熱演 助演 鈴木勝彥・瀨鈴子・嵐德三郎・外オールスターキャスト
晝間映畫・夜間演劇
◆MGM全日本版 키-톤의決鬪狂 九卷
알센・루팡 十卷
◆夜間演劇◆
階上 大人五十錢 小人三十錢 階下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어린이十錢
◆朴英鎬作 史劇 開化前夜 三幕
◆虹丘作 喜劇 사랑은좋도적 一幕
◆幕間◆ 獨唱과합창 舞踊公開
一月一日낫부터 ◆新春超特別大興行
◆MGM短篇全發聲 漫畫 개구리의써커스 一卷
◆MGM特作全發聲日本版 마리-드레스라 폴리-모란 主演 나는重役 全十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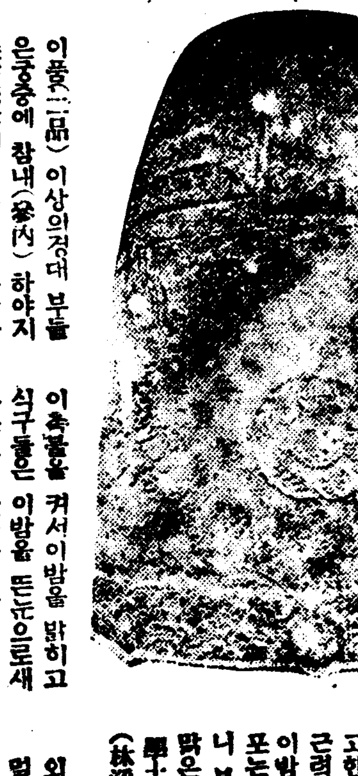
團成社 授恩洞 電光 [illegible]

# 뎅…울리는 종소리에 이해의 煩惱도 雪解 1933年아잘가거라

십이월삼십일일, 벽에부튼력서(曆書)의 최후의 한조각을 남긴 이해의끗날은 마츰내이르고말엇다 생활에 억매고물욕에 눈어두운사람들은 한해가끗나는 마즈막날이라고 이해안에 생긴일은 이날까지에 끗낸다는 뜻으로 졸르고조리고찻고피하야 방만(放漫)하얏든이생의 입녀생활과 사회의일년간 동태를 짧은이한두로모아노코 축집(蓄集) 식여노아 하루가지나고 새로운하루가 이어데입으는 다른때와다름업스나 한해를보내고 새한해를 맛는다는 조그마한관념(觀念)이 사람들로하야금이 가치괴롭고 이가치 번거로운하루를 겪게한다 거리를달리는세찬배달의자전거(벼다른)가 붐날드시 밧볼때 끔북안대문간에는 빗쟁이게 비명(悲鳴)을 드리는 가난한집 가장의 목청은어느듯 쉬여버린다괴로운그몸 힘 드는그몸!

×

그러나 그것도하루해가 지나고초저녁이 넘서서 서정이되여제야(除夜)의 종(鐘)이우렁차게우는 그때에는 백팔번뇌(百八煩惱)가 다살아지고 한깁흔지난해 가려사의 저언덕으로 살아지고 희망에가득



천세하기 등이 가장엄숙한희을마사람이 늣기게 되는것이다 녯적에는 이날새울에 잇는 이품(二品)이상의정대 부들은궁중에 참내(參內)하야지존(至尊)께 묵은해의 문안을 이로도 집전이ㅅ는 사당(祠堂)과 어룬에게 묵은세배를 다니며 이날밤에는 집안곳곳 이촛불을 켜서이밤을 밝히고 식구들은 이밤을 뜬눈으로새우는것이 한풍속이다 어린아이들은 이날에 잠자면눈썹이 세인다하야 잠오는눈을억지로 버텨거 어른을웃기고거리에는 떡치는메소리가끊길줄을모르는것이엿다

×

부모를 모신사람은 이날을보내고 새날을맛기여 한편기젓고한편 두려여하는 부모의 근려와 이밤을마는 객자(客子)의 회포는 늣김이더욱이 깁흔것이니 북로(北虜)에게 잡혀가맛은이좋남리든 삼희사(三學士)의 한사람인 림경윤집(林慶尹集)씨의 시(詩)

× ×

외등잔 반벼에 반—한곳 멀리온 나그내가 잠못이룬다 발소을 녹아서 옷자국이 늣거엄는 희포가 그지업고나 하늘가 아득한 저—고향에 어머님 근려이 엇더하실가 이한밤이 지새는대일 아츰은 쇠한몸에 한해백발(一年白髮) 더해지시리……

× ×

【原詩】半夜殘燈照不眠、深夜旅館思悠然、積憂定省今安否、鄕愁明朝又一年

× ×

를보아도 능히짐작할수 잇다 (사진은경주봉덕사(慶州奉德寺)종)

# 黃金朝鮮의一年間面貌

## 今年中鑛業出願 五千有二十五件!

### 金銀關係만三千二百二十三件 比昨年千八百餘件增加

찬란하엿든 금년의황금 광시대도일 확천금의꿈을 꾸던면서금년를보내고새해를 맛게되는다그리하야 금년의 경과의일부분은 금광경기의 늣김이잇섯다 지난 이십일까지에 총독부 광산과의조사에 의하면 광업출원건 수가 오천이십오건에 달하고 그중에 금과 은(銀)에 관계잇는 광산만이 실로 삼천이백이십삼건인데 이것을 작년중의 통계에 비하여보면 총건수에잇서 일천팔백이십일건이 증가되고 금은관계의 광산만도 일천이백칠십삼건의 격증을보이고잇다 또채굴방법과 전문가의 의견을들으려고 귀술관 파견의신청도 례년에비하면 대단히 만으며광산에 과학적 기계설비를하는것도 점차증가하고잇고 또광구대장(鑛區臺帳)과 도면열람(圖面閱覽)을하고저조선각지에서 총독부광산과에 오는자가 비상히만헛다 명년에는 출원건수가 다시 비약적으로 증가할것으로 보인다한다

## 日本勞農辯護士 廿八日五名起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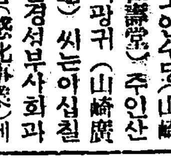
【동경전보】지난구월중순에 일제히검거된 일본로농변호사단(日本勞農辯護士團)소속 변호사중 처분미정으로 되어잇든상촌진(上村進) 포시진치(布施辰治)등의외 삼명의변호사는 이십팔일에 모다 치안유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엿다

## 新設되는 寫眞講習院 一月十六日開講

조선에사진교육기관이업슴을유감으로 생각하고 경성사진사협회(寫眞師協會)와경성인상사진연구회(人像寫眞硏究會)등세단체의 련합으로 『경성사진 강습원』을 조직하엿다 요지음에 당국의인가가나왓슴으로 장소를 시내무교정(武橋町) 사번지에두고래년일월일일부터 입학원서를 수리하고개학은 일월십륙일부터하게되엇다 원장은동경사진전문학교(東京寫眞專門學校)출신인신락균(申樂均)씨오 강사는 시내각사진관주인으로 그방면에연구가 깁흔사람들이 담당케되여 사진술연구의 구든긔관이 되리라고 기대되고 잇다강사의 씨명은다음과갓고 림시사무소는 수은동(授恩洞) 륙십팔번지이라한다

院長申樂均 致務主任朴弼浩 講師金光培 玄鎭麟 朴晩達 金潤彥 玄一榮 李元根 李成允 任昌淳 金昌燮 文致暲 尹弼求 庶務劉永斗

## 感化事業에 萬圓寄附 山崎氏의美擧



시내종로(鍾路)륙정목일백이십팔번지에잇는 산긔인수당(山崎仁壽堂)주인산긔광귀(山崎廣龜)씨는아심칠일경성부사회과에대하야감화사업(感化事業)에 써달라고 현금일만원을 긔부하얏는데 산긔씨는 종래에도여러곳자선단체에 금품을 긔부한독지가라한다 (사진은산긔씨)

## 大昌社專務家에 二十餘人夫襲來 未拂賃金支拂을要求

시내종로 네거리 대창직물회사(大昌織物會社)에는그동안문제가 생겨서유혈의 참극까지이르킨일이 잇섯는데 삼십일오전열한시 동회사공장(청량리)건축인부 이십여명이 습래하야회사간무(幹務)백락승(白樂承)씨에게 면회를강청하고 지불아니한 급료를강경히청구 하엿다 백씨는 형세가험악함으로 남대문통(南大門通)한성은행(漢城銀行)에피신하엿더니 인부들은다시그곳으로 딸아가 백씨를차젓스나 업슴으로 서린동(瑞麟洞)백씨에집에까지 몰려가서소동을이르키어 일시사태가 위험하엿다 급보를바든 종로서(鍾路署)에서는령사가신속히 이십여명이 출동하야 인부측 십오명을 일시검속한후 쌍방을 불러서 영정(永井)사법주임이 취조중이나 이와가치 큰차문제가되는 배후에는 회사측과청부인측사히에 자못복잡한 문제가 엉크러잇는까닭이라한다

## 密輸防止策으로 多數監視所設置

### 國境은물샐틈업게되엿다

초가을부터 무장공산군 침입에 방비하고저 국경일대의 경계진을 공고히할 가진준비를다하고잇든 경무당국은 최근에압록강두만강의 결빙됨에따라 경계진을 본격적으로펴게되엇다 즉 경무국에서는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 삼도의 국경지방경찰당국과 협의하야가지고 정찰세관(稅關)전매국(專賣局)등이총출동하야 무장단 침입을방비하는동시에 각종 물품의밀수출 특히일만(日滿)관계가 특수하게되이래 지금(地金)과 포목의 밀수출이격증한 관계로만주국을 위한일본당국의 비밀무역취체에 고심하고잇는 당국은국경 경비를공고하는동시에 건긔와가치 조선만주간의 비밀무역취체에도 협력하기위하야 각지에 림시감시소와 비상련락감시소등을 다수설지하고 세명을한반으로한 특별경계빈을 두고또 요소요소에는 오명식의 특치원(特置員)을두어 물샐틈업는 경계망을 펴게되여 관계세도당국에서는 림시로직원을 증원[illegible]방침하에 경계진을 펴고잇다

상해보전농구단환영회기념촬영(본사지국주최)

## 안동현칠도구에 一夜三次馬賊襲來 十餘名을人質로拉去

【安東縣】안동서의뒤말대경 안동현칠도구에 마적단이 침입하야 십수명의인질(人質)을랍치한 사건이 생기엿다 지난이십팔일 오후삼시오분경에 안동현칠도구 원보산리(元寶山里)에 두목리승림(李勝林)점동양(占東洋)등 약이십명이나타나서 만주인오륙명을 잡아가고 도다시 지난이십팔일오전이시삼십분경 칠도구 제이구 경제백삼십일호 왕봉귀(王本貴)의집에 총괴를 들고 약십명이 침입하야 아희일명과 산동성출생의 왕운국(王云國)(三)국경신문사공장원(國境新聞社工場員)을랍거하엿다 다시오전이시사십분경 안동현재상부 이백십오호 교권록의집에 사용병의 마적이침입하야 자고잇는 어린아희와 왕영록(王永祿)명을 잡아가지고 어데로인지 종적을감주엇다고한다

## 오케—레코—드의 慈善演藝延期 卅、卅一日兩日로

【開城】긔보=오케—레코—드주최와 본사개성지국 후원의 세모자선연예회는 지난 이십구일에 긔여히개최코저 만반준비가다되엿섯는데 평양에서 하로묵고 만하려든것이 인긔를끄러 하로 더개최하기로 되엿슴으로 개성서는 부득이 연긔하게되여 삼십일과 삼십일일량일간 개최하기로되엿다한다

## 府廳稅事務는 卅一日까지取扱

경성부세무과에서는재일긔분지세(地稅)를체납한체납자를위하야삼십일일 까지사무를 취급하기로하얏다한다

## 安國洞敎會에서 新年早天講說會

시내안국동교회(安國洞敎會)에서는 일월일일 오전여섯시에신년조천강설회(新年早天講說會)를개최한다는데 사계의권위 정남수(鄭南水)씨의강연이잇다는바 다수히참석하기를바란다한다

## 日曜講話

◇覺皇寺(午前十一時) 年終과反省 金泰洽
◇中央敎會(午前十一時) 梁柱三 脫舊衣新하라(後七時) 崔在鶴
◇向上會館(午後七時) 해를보내면서 李智光
◇貞洞敎會(午前十一時) 그리스도의마음 金永燮 (午後七時) 勝利의道 梁柱三
◇勝洞敎會(午前十一時) 남은문제 洪秉璇 (午後七時) 歲暮歸人 羅在夏

## 天氣豫報

晴一時曇

七百五十四미리의低氣壓은南西諸島에잇고 七百六十八미리의高氣壓은滿洲에잇는데 또弱한低氣壓이日本海南部에잇다 朝鮮은南、京仁地方은雪、其他는雲이불고있고 明日은天氣가좃하지고 추위의질거이다

氣溫 本日正午 最高 最低 零下 〇、三、二五 九

## 春風秋雨四千年 壇君陵上茅草盛

### 陵守護所建築에 義捐遝至 이미八百三十餘圓에到達

단군릉수호소(壇君陵守護所)건축계획은평남강동(江東)군내의 유지의발긔로 긔성회까지 조직하고방금성금(誠金)을모집하고 잇서 각방면으로 성금이답지하는중이여다 이십구일현재의 성금 응모자는 일백칠십칠명이고 그 출연금액은 팔백삼십사원에 달한다 그런데이단군릉으로 말하면문헌비고(文獻備考)에단군묘는평안북도강동현(縣)서편삼십삼리의지점에잇고그릉의 주위(周圍)가사백십척이나된다는것과기타의고본사적(古本史蹟)에분명히씨여잇서 강동군에 잇는근거가 확실함으로리조정종(李朝正宗)시대병오(丙午)년에 현감(縣監)서형수(徐瀅修)가상주(上奏)한결과평안도감사(監司)조경(趙敬)에게명하야춘추이회에친히봉심(奉審)케하엿으나그후오래동안 폐지하야 점차엿날의면목을일케되여일반이크게유감으로 생각하여오든바 대정십이년에 강동군 명륜회(明倫會)에서 새로히담을쌋고 문을세워서 설비를하고 동회에서 고전(古典)에의하야 제사를 하여왓섯다 그러나모양이 비바람에불숭사나위다시수축하려는것이다

【江東】평남강동 단군릉수호소건축긔성회(壇君陵守護所建築期成會)에서 방금성금을모집한다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본군각면에서는 이일에열성을다하야 성금을 내인다하는데 지금들어온성금은아래와갓다

百圓 金商俊 十圓 尹完燮
五十圓 張雲景 十圓 金天羽
五十圓 金商和 十五圓 金隣
甲 十圓 尹宜洪 十圓 金商武
十圓 黃貞俊 一圓 金秘成
十圓 張雲翼 一圓 崔雲龍
五圓 金炳鉉 一圓 王基柄
五圓 蔡應周 一圓 玄雲鵬
一圓 李俊甫 五圓 文漢極
江東面阿達里 五十錢 文士鐵
五十錢 蔡錫周 一圓 金隣
益 五圓 李元錫
三登面太송里 二圓 林貞根
三圓 尹士殷 一圓 白樂範
三圓 金濟贊 二圓 白錫濤
一圓 白文奎 二圓 白日泰
十圓 白樂仁 五圓 白仁奎
三登面古阜里 三圓
三圓 金珏鎬 二圓 金慶鎬
二圓 安秉德 二圓 金斗七
▲以上合計三百四十一圓

## 上海遠征最終戰 米國陸軍에게敗 米陸42 普專33

【上海特電】普專上海遠征最後의一戰인 對米國陸軍戰은 二十九日밤七時부터 當地外國人YMCA에서挙行한바結局 42—33으로普專軍敗하엿다

## 中等氷上決勝 張金兩君入賞 新記錄이續出

【電通日光電話】中等學校氷上大會第三日은三十日午前七時半부터 續行한바日氣는흐리고無風 氣溫은零下一度로氷質은良好하엿다

【千五百米決勝】
▲1 泉山(八戶商業)二分四十三秒二▲2 中村(苫小牧)二分四十三秒二 ▲3 張祜植(名敎)二分四十五秒三 ▲4 安保(苫小牧)二分四十六秒(以上中等新記錄) ▲5 金永洵(中央高普)二分五十四秒三 ▲6 本多(北海中學)

【五千米決勝】
▲1 中村(苫小牧) 十分九秒六 ▲2 泉山(八戶)十分十秒一▲3 安保(苫小牧)十分十一秒▲4 張祜植(名敎)

## 上海支局主催 普專歡迎會 盛況을일우어

【上海特信】本社上海支局主催로 當地霞民一周이法界八仙橋基督敎靑年會館에서 上海遠征普專籠球團歡迎會를 開催하엿는데 支局長金瑛鎭君司會下에 當地志士李泳枯氏의 歡迎辭와 聲樂一隊樂家 李信愛孃李惠英君의 歡迎歌로 滿場諸氏는 깃븜에 넘치엿고 同時普專籠球部長洪性夏先生의 感謝에넘치는 答辭가잇섯다 그리고 李恩泳女史의 故鄕그립다는노래 張信愛孃의 노래가잇은후 晩餐이始作되엿는데自然깃븜에넘치는 그네들마음에 賓客을勿論하고餘興에 醉하게되는中 普專코—취金永述氏의 아리랑노래까지잇서 場內는和氣에넘치엇다 끄트로普專籠球團萬歲三唱으로 同九時半에閉會하엿다 並하여靑年會大廣場에서歡迎會記念撮影을하엿다

## 普專籠球團 上海遠征記 【3】

上海에서 金永述

【中略】二十三日! 이날은果然 우리의技術과 力量을 極東의中心地요 琉球王國이라 고하야도 過言이안일만한 上海에서되일때가 도라왓습니다 이國際競技의成功不成功이야말로 普專의籠球라는것보다 朝鮮籠球界의 存在와運命이 左右될만한 重且大한 껨이올시다 이곳에와서 偶居하야잇는 米國陸軍팀이나 外國人 YMCA에 所屬된 『빽칸니어스』라는 西洋人팀보다도 極東에서 傳統的으로 實力과强味를가지고잇는 中國人팀과 對抗하는 것이 우리의目標이엿습니다 그리하야 우리는무엇보다도 第一回戰의暨南大學팀이나 第二回戰의全滬江팀을 곡擊破하여야겟다는것을 決心케되어이곳大學팀의 實力들은 서로큰差異가업다합니다 그러한中 滬江大學이그中 强味가잇다는評判이오며 第一回戰에交通大學이되느니 暨南이하느니하다가 暨南으로되엿것이 껨한成績으로보아 暨南이낫다고하야 暨南으로되엿다합니다그럼으로우리는 正式對抗戰에 이팀만의이면 交通大學팀과練習껨에二次나敗한것에 面目이이스리라는 野心도 조금잇섯든것입니다

우리는 朝飯을畢한後 十一時부터 午後一時半가지暨南과의합作戰과對策을한後 徹頭徹尾하게 充分히 討議하야 물부어셀름이 업슬간치 方針을定하야두고 껨할時間오기를苦待하엿습니다

競技時間은 午後七時부터인데 첫껨이우리와 暨南大學이요 둘재껨이 天津서온 良華팀과 이곳老將들로만모인 友邦팀이올시다 競技場은 佛租界天文臺路에잇는滬靑協進會所屬의籠球場으로빠라크로된老朽의建物로 코트의長廣이 約80尺에對한45尺假量으로 普通껨하기에는適當한곳이엿스며 스탠드는 正門入口를除하고는三面으로約六九層이나되어 觀覽者도能히一千二三百을 收容할만하갓습니다 이날競技場에는意外에도觀覽者가 적음어比하야同胞들에應援者들은만엇습니다

七時定刻에審判의 呼角소리는 들니엿습니다 그러나처음부터 적지안케不安을늣기게된것은 이곳審判들에 明確한判定이不足한데疑心을 두엇섯는데 더군다나이러한 重大한껨에單一人의 審判으로對한것임니다 그러나엇지하릿가 勝負는다만運命에맛기고 싸홀따름이엿습니다

| 反延後前 | 【普專】 | | 【暨南】 | 前後延反 |
|---|---|---|---|---|
| 4022 | 孫彼得 | F | 黃起霖 | 8521 |
| 0420 | 金寶岳 | | 尹貴仁 | 0201 |
| 0060 | 金學洲 | | | |
| 1047 | 安台慶 | C | 韓振元 | 2604 |
| 5244 | 宋基宇 | G | 王庠珍 | 3201 |
| 0211 | 金化泳 | | 王潤漢 | 2521 |
| 0000 | 柳鎭淵 | | 宮萬育 | 0000 |
| 8 8 19 14 | | | | 15 18 4 8 |

▲自由投十投九成功
▲自由投八投七成功


淋疾患者의大福音 當選淋藥의出現

效力一等 當選淋藥

●누구든지 淋疾이나 膀胱炎에 한번 걸니면 尿道炎·睾丸炎·膀胱炎·子宮內膜炎等이 續發하야 이약저약 해만 혼 돈을 浪費하게됩니다

●當選淋藥은 天下사람이 다 아시는 바와가티 平和堂에서 再昨年에 花柳亡國病淋疾에 特效藥을 懸賞募集한結果 應募된 東洋西洋의 有名藥品 七百餘種 名處方(卽洋藥으로된處方 漢藥으로된處方 新藥으로된處方 民間世傳秘方等)中에서 花柳病專門醫師와 藥劑師等이 實驗하고 또 實驗하야 가장特效한것 數種을 選擇하고 또 그中에서 比較實驗하야 最後一方을擇하야 此를 當選淋藥이라고 命名하고 곳當局의 認許를엇어 世間에 發賣를 開始한것입니다 이 不誣의 事實이요 當選淋藥의 來歷이니

●專門家는 勿論이요 淋藥은 무엇이 조흔지 모르는 사람이라도 平和堂會社를밋고 이藥을 곳써보시요 써보신 藥中에 特別히 第一날것이올시다

特長

●當選淋藥의 來歷이 右와如하니 이藥은 잘낫는 藥中에 더욱 잘낫는 藥이요 特效藥中에 더욱 特效藥이어요 第一가는 藥中에 더욱 第一가는 藥이라는것은 根據업는 헛튼말이아니요 右記事實이 證明하고잇습니다

●當選淋藥原料中에는 여러가지 強한 殺菌藥이 合成되여잇는데 新藥으로는 獨逸バイエル會社 自慢特製新藥一瓶七十五圓하는 藥도 慢性用에 一日分에 一、五瓦式 確實히 드럿습니다【獨逸藥 日本藥 漢藥合劑】

●服藥數時間後부터 秋霜가튼 殺菌作用을 始作하야 淋菌과 淋毒을 모라냄으로 엇던藥보다도 最短期에 特效를보게됩니다 男女間安心하시고 只今곳 이藥을 써보시요

慢性全治用 急性全治用 一週分 四圓 一週分 二圓半 / 慢性重症全治用 十五日分 八圓 急性重症全治用 十五日分 五圓 (送料先金이면無料 代金이면三十錢)

京城府鍾路二丁目八七、二 (光化門郵便局東隣)

株式會社 平和堂 藥品部

電話光化門六二三三·振替九四三

特約店 朝鮮京城 新井藥房 木村藥房 中國北平 亞細亞大藥房

保健 經濟 避難 弊陷 强發 谷辭 生食 乳酸 法說明書及衛案內送呈要 二錢切手三枚 液新發明品實物見本送呈要 二錢切手五枚 京城東大門外新設里 朝鮮保康會

癩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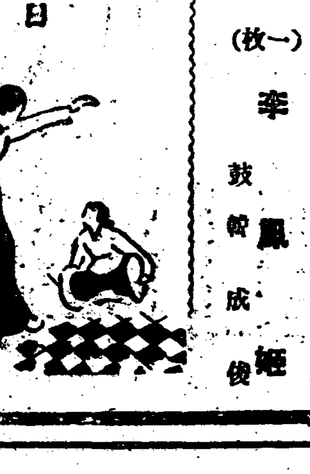
本所의新發明한癩病藥은最重症이라도短期에完快되오니今番特히 全治되는後에는實費로賣하고 苦悶하는諸氏는本所에 身치말하고速히本藥을服用하시라 手一枚 說明書進呈 癩病根絕 東萊 研究所 釜山府草梁町 電話 二〇三番 振替釜山五二〇三番

콜럼비아레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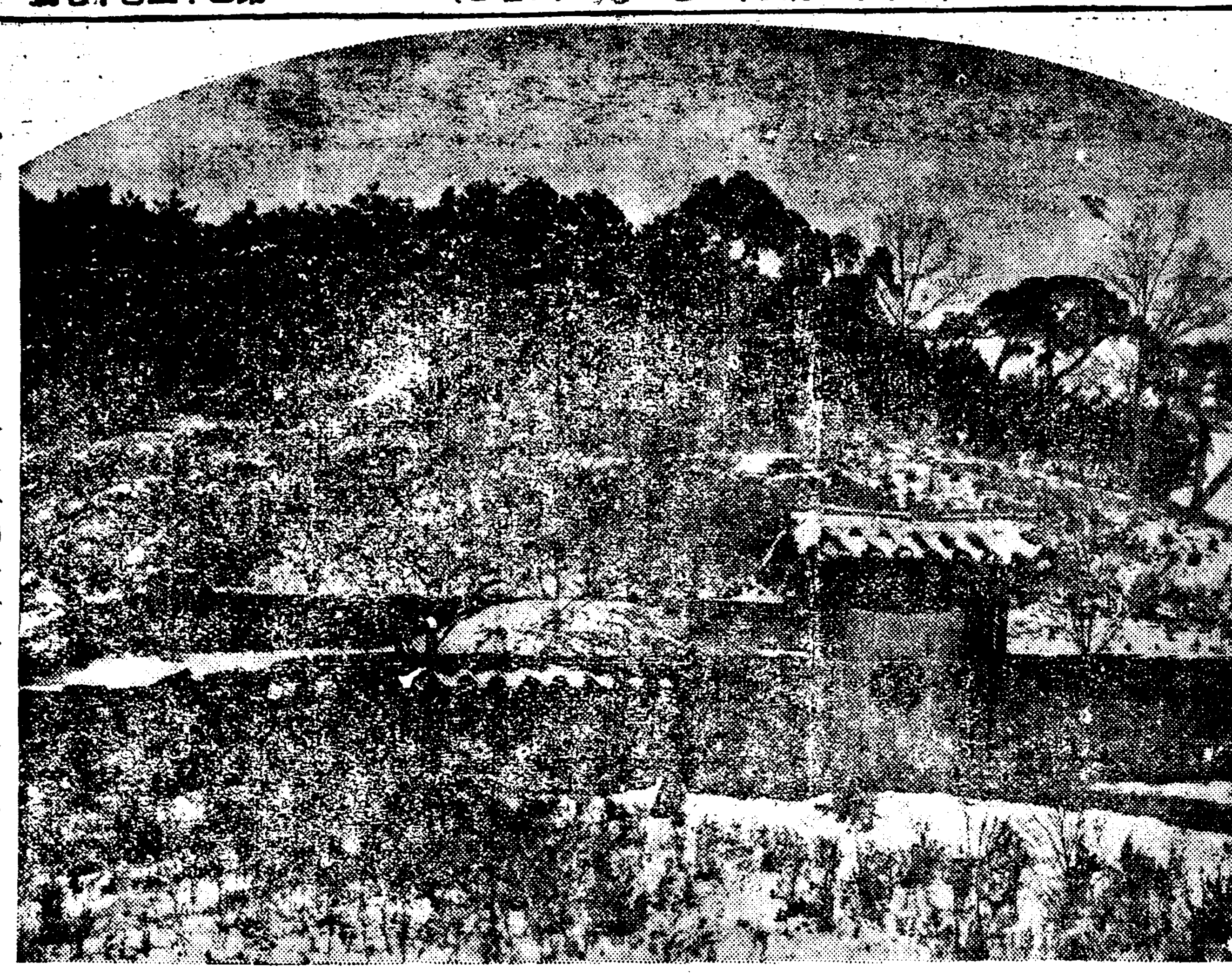
Columbia

朝鮮레코—드正月新譜

流行歌 希望의북소래 (一枚) A 蔡奎燁 指揮 安益祚 慶應大學맨도린團
夜江哀曲 B 安一波 伴奏日本콜럼비아管絃樂團
同 人生의一恨嘆 上海의一夜 (一枚) 林憲翼 伴奏日本콜럼비아管絃樂團
同 春恨 이래야할는지 (一枚) A 崔明珠 B 全玉 伴奏日本콜럼비아管絃樂團
兒童悲話 哀曲 (一枚) 沈影 金仙草 管絃樂伴奏 金聖雲 金英
短歌 片時春 雲淡風景 (一枚) 李鳳姬 鼓 韓成俊



發賣日 昭和八年十二月二十日

# 惡地主去益跋扈
## 作人에게全地稅負擔

【晋州】한동안소작쟁의로농민조합원대지주간 싸홈으로 세인의 이목을끄러오든 경남의내군하에서는 농민조합을 일체해산시키고 농민의 합법적대책까지업금하는 반면에 지주의착취심은 갈사록 시긔가도래하엿다하야 극히가혹하여저서 일반농민의 무의무소한 원성이 날로격열하고잇다함은 들보한바어니와 개중에가혹한 지주의착취을 은녀옥교묘하야저서 지가백원두에 상원쯤십긴식 권지세를계산하야 화권에는 보리를증수할때에 보리한말에 꽉십긴식시가부터 수곡할때에 선수하여가며 수권에는 논보리세로 매두락에 서말닷되식 지세조로 한말식이려케 가혹히착취를하고 잇스며 혹자는 압날지세를 자긔가커부담하다가 근일에와서는 남과가티한다고세삼스러지히세를작인에게강요하는등허해색색으로발호하고잇다한다그나마소작을하지안으면목권에긔사를면치모할 일반작인들은 리면에는 정치의원을품고잇스나 포면에는 지주에게그런말을 못하고 세상에공포하면 소작권을즉시 떠러지고마는바 소위당국자들은 표면무사정책으로 알고도 모르는체만하는것이아니라 도로혀 무슨증거소면가튼 사실진무란 구설로긔교한현상을취하고잇다한다

# 利原新明學校 財政難에直面
## 創設二十七年인今日의悲運

【利原】함남 리원군 동면선명학교는 광무(光武)십년에 박승동(朴承洙)씨 발긔로 설립한학교로 무산아동의 유일한교육긔관으로 이십칠년 동안긴력사를가지고 경영하여 오든바불경긔의 맹습과 아울너리원농황으로말미암아 금년부터 경영난에직면하여 신음하는바 일반사회유지인사의 동정을·긔대한다고한다

# 地稅負擔問題로 小作爭議勃發
## 郡當局調停에努力

【河陽】경북경산군하양과와촌일대에 만흔토지를 처음으로소유하게된 허모(許某)씨와 그소작인들사이에 쟁의가 발생되야 여론의 초점에올너잇다이제그자세한 말을 듯건대 원래이토지는 대구에잇는 지주윤복긔(尹福基)씨의 토지이던바 윤씨와 소작인간에 소작계약체결에는 곡수를 납부하면지세(地稅)는 지주가 커부부담하여온것을 허지주는 가튼계약으로써 지세를 지주가부담치안코 소작인에게 떠넘기라하나 소작인은이에불응하야 허지주대리인허건(許鍵)이가 대항책으로 지세를납 자는 이작을 식히고자함으로을맛고사는사람은빗을내여납부하는자도잇서 소작인간에는 여간큰문제가 아니라하며 군당국에서도 조사와조정에 출마하엿다는바 허지주의금후 태도를일반은주목하고잇다고한다

### 慈善音樂會平壤서大盛況

【平壤】오케-축음긔회사조선지점주최와본사평양지국후원으로 개최된세모자선연예대회는 이십팔일오후칠시삼십분부터 금천대좌(金千代座)에서개최되엿섯다 몰녀드는관중은 정각전삼십분에 대만원의성황을 이루어 세모에 처음보는대성황을보히엇섯다 동사전속예술가 총출동의 숙련한기예는만장한 청중에게 박수환호를받엇섯다 처음에 구경하지못한 부민들의 간절한요구에 의하여흥수업 시일을연긔하여 이십구일에도 금천대좌에서 대성황리에서 계속개최되엿섯다 오케-회사에서 본사에 제공하는현금백원을밧어 평양고아원(孤兒院) 자생원(慈生院) 양로원(養老院)등에 각기분배하기로되엿다

나의당일에 출석하여온이십여명 … 엿다고한다

…(面職員)이 …氏)장겨 …을참지하고저 먹을물 타가지고 남비에 먹을을 부리어중으로한창동안은 바다의 물결가티먹을 올피하여 다니노라고 이곳저곳으로오락 가락하는 피란놀연을 하였다 한옷입은 사람들중에는 당국에 대하여 끌목에서목섬이 만침쓰며 당국자들로서는 철저히엽색옷을착용케하려는방침이라한다

# 二人組假刑事가 現金을騙取
## 旅館宿泊人에게서

【安東縣】지난 이십륙일 오후십시경에당지김은긔(金殷基)려관에는 가형사두명이 나타나서 동일려남에서 안동에가서그려관에두숙중인김재렬(金載烈)씨에게 대하야 자긔들은안동경찰서의형사들이라고하고돈을함부로 수사한후 현금사백원을가지고가면서 래일정오까지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엄명하엿다 김씨는 초조한마음으로 밤을새우고 그이튼날인 이십칠일에동서에 출두하야 이사실을말하고돈을돌여주기를청하여비로소그들이 가형사인것이 판명되야동서에서는 방금범인을 사방으로탐색중이라고한다

# 高原에積雪로 各地工事中止
## 八百餘勞働者失職彷徨

【高原】함남고원지대에는하천정리、평원철도제사공구、수리조합(河川整理、平元鐵道第四工區、水利組合)등 삼대공사는 작년춘긔부터 긔공하여 이때까지 아무런지장이 업시 공사를 진행하여오든바 지난십오일밤과 지난이십칠일 두차례의내린눈으로말미암아땅이어려서 공사를할도리가업서서전긔삼대공사장의 팔백여로동자들은구차한생활을 지속하면서 그날그날의빵문제을 해결하여오든바 벌서삼주간이나 현장에 나가지못하고 도로에서 방황하는자가 련일속출하는바 압날의 쳐한풍은점점더가 혹하여오는이즈음에그네들의 생활진도는 날이갈수록험악하게될줄을 일반은 매우주목한다고한다

# 長淵邑教會에서 幼兒健康診斷

【長淵】황해도장연읍교회에서는 유아보견(幼兒保健)을 위하야 유아부를 설치하고만사세(滿四歲)여아들을 매월일회 혹은 이회식건강진단을 시행하기로하여섯는데 지난십이월 이십팔일에 처음으로당읍의사 해서의원(海西醫院)서재면(徐載冕)씨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엿섯든바 그날은마츰때안인 비가와서

# 慈城鑛山서 鑛夫慘死

【順安】평남평원군동암면어승리(平南平原郡東岩面御承里)자성광업소(慈城鑛業所)광부오태순(吳泰淳)(二十)은 이십이일오후한시삼십오분경에 선광당에서 작업중불실되여 호두마야와기야에끼여 귀신이 탕치듯터저보기에도 끔직하게 즉사하엿다는대 그의가정으로말하면 팔십여제의 로부와 어린자식이남어잇다한다『이엄동에압길이망망할뿐아니라 저자식을 엇지할리가?』하는 로부의 탄식하는양은 보는사람의눈물을 자어내엿다는바 이광산은 각금이런불상사가잇섯다고한다

# 記者倶樂部 創立總會
## 沙里院에서

【沙里院】황해도사리원에잇는 조선문신문긔자간에는 언론긔관 단결의필요가잇다하야 당업자간에 협의를 거듭하여오든바 지난이십륙일 오후일곱시에 동아、조선중앙、매일、조선 네국관게자가 회합하야 긔우구락부(記友倶樂部)를조직하엿는데 그의 강령과참가인원은 다음과갓다

◇綱領 互相親睦을圖하며 言論의權利伸張을期함
◇倶樂部員 東亞李根浩 朝鮮中央李應成 每申李根琛 朴斗煥 朝鮮金東燁 金在天 朴命植
◇幹事 朴命植

# 地方有志招請코 新年懇談開催

권과긔우구락부(記友倶樂部)라는단체를 조직하엿다함은 별항과갓거니와 그의제일착의 사업으로 오는삼십일오후한시에 망년회라는 명목으로 시내유지사오십명을 영회관(英會館)에 청하야 대사리원건설(大沙里院建設)과사리원발전책(沙里院發展策)에대한의견의 발표를구하야 이것을 각신문지상에 발표하야 대사리원을건설하며 사리원발전책을구하는데 일대참고를 삼으라는개획이라고한다

# 大邱서名畵上映
## 本報讀者優待

【大邱】대구에 잇는 호락관 … 부터서실시하엿을 까지삼일간에 뼈이외 최후일이라는 대명화와 백만(百萬)이라는대희극상영하게되엿는데 본보대구 지국에서는이긔회를 리용하야 일체독자삼십삼번의 마지막 가는이때에 독자들에게 세모의 우대를하기위하야세모우대권(歲暮優待券)을배부 하엿는데이우대 권을가지고오는 독자들에게는계상(階上)삼십전 계하(階下)이십전을각각반액으로우대하기로되엿다고한다

# 元山見山里 牛車組合創立

【元山】시외견산리(見山里)에서는 우차(牛車)업자들의 리익과 친목을도모키위하야 이신일일오후 칠시경에 동리리석기방에서 견산리우차조합(見山里牛車組合)을창립하엿다는데 조합원은 현재삼십오명이라하며 조합장은 리석기(李錫基)씨고종무는박종수(朴宗守)씨라고한다

# 盈德長老教會 聖誕記念救濟

【盈德】경북영덕읍장로교회(盈德邑長老教會)에서는레년의로직혀오는「크리스마스」를보낸에도 교인일동이축하하는중 특히당일에모힌의연금으로서극빈자십여인에게 의복재료를 분급하엿는바 작년도서탄시에도 걸식(乞食)하는불우자들에게의복을제공한일이잇섯다고한다

# 流離케된身勢 前途悲觀코自殺
## 이것도人生의悲觀

【淸道】원수의생활난으로지난이십륙일 청도천원성교(淸道川元井橋)에서투신자살한 녀성한사람이잇다그는청도군풍각면흑석동손태헌(淸道郡豐角面黑石洞孫泰憲)의처 리석현(李石鉉)으로서 그의자살한사정을들으면 그의남편손태헌은 일족부자는아니엇스나농가에서남부럽지안흔생활을 하여오든중 폐퇴해가는농촌에서가산을팔아 부채를갑흐며 혹은 곡상혹은음식영업으로 생활방책에 여러가지노력을하야나오다가 작금에이르러 집까지팔게되야 내외간의고민은 여간이아니엇섯는대 남편은 빵을차저 남북만주로류리의길을 떠나려고하엿는대 그의처리씨는 닥처오는 압길의고생을생각하야 자긔의 생명을바린것이라고한다

# 染色講習會

【洪川】홍천남면명덕공립보통학교에서는 오는 일월오일부터 본사홍천지국후원으로 염색강습회를 개최하고 남면농촌진흥과 색의장려를 일반면주민에게와 통학아동의가정을 중심으로하여 강습을시킬터이라는바 주최는 명덕공보교장리찬주(李璨柱)씨가실비와강사의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이와가티 본사홍천지국과합력하야 오일동안 강습을시키리라는데 아모조록 강습원이다수집중키를바란다고한다

# 稻收穫品評
## 新灘津水利組合

【大田】신탄진수리조합(新灘津水利組合)은총몽리 면적이 백삼십삼칠정보로서 대정구년에개업하엿는데 동조합간부 제씨가 고간공사상에 만흔고심을한결과 지금에와서는 한수해에대한 념려가 조금도업시공사를완 … 한에서 제일회 도작다수확품평회(稻作多收穫品評會)를개최하고 심사한결과 지난구일오전십일시에 신탄보통학고에서 상품수여식을 행하엿는데 입상자씨명과 상품은다음과갓다한다

一等(銀坊主)九石九升松井寬七郎 大族生二等(銀坊主)七石五六升池淡吉 唐黄 二等(銀坊主)七石四七升 相助由‧唐黄 二等(中神力)七石三八二 唐黄 三等(銀坊主)七石二三 新灘公普校外三人 等外朴翊鈞外五人

# 巨額債權拋棄
## 食糧、叺織機等을 貧民에게無料分配
### ◇小作人의發起로建碑

【扶餘】부여군옥산면수암리(玉山面秀岩里)횡미계일(橫尾啓一)은본적을좌하현오도군하촌(佐賀縣杵島郡下村)으로부터 이십일년전 대정이년에 동양척식회사이민(東拓會社移民)으로건너와주소에이주한이래 이십여년간 풍운리하여오늘과 지금은 약사만여원의재산을모호게 되엿는데그는자녀부터 소작인과 면민들의 채무를 십붓지일로 탕감한금액이약삼천원의 거액에 달하엿스며그뿐아니라현대에지주들의횡포과유산자의착취가시행하는이때에그는한재에는빈민에게랴식을분배하여주고소작인에게는작권을 절대이동치안호며 소작료를달는지주보다 일할이상 감수하며 가마니틀을 구입하여빈민에게 난호아주어농한기에 가마니를짜게하여 때때로 입직경기회(叺織競技)도개최하는등씨는이지방 빈민을위하야 노력하고잇슴으로 지난이십칠일에는 소작인의 발긔로씨를 칭송하는 비석을세웟다고한다

# 漁場에出役
## 三百餘婦女

【長箭】강원도장전항에거주하는 가정부녀삼백여명은 일즉부터 각공장과잡어온 정어리를 그물에서 떠내기에주야를 불고하고만흔 활동을하고 잇슴으로한이채(異彩)를 이루어 일반의「센세이숀」을 일으키고 잇다는데이제그들의 로동임금을 보면한시간젓군 이전오리로부터 사전까지가 최고라고하며 또한그들의 생활상태를보면 대개가빈한한가정에서자최가규문(閨門)을버서나지 못하야 쯔들녀가는살님사리에 하는수업시 재래인습을 차버리고 경제적자각에서나온것이라하야 일반의 호평이자자하다는바 그중에는 자긔남편을 멀니만주로동시장(滿洲勞働市場)에보내고 주장업고돈업서서 자긔조차 직업로동선상에나선부녀도 한두사람이 아니라고한다

# 穩城對岸에 武裝隊出現
## 穀物四十餘石奪去

【穩城】금월이십오일오후열두시경에 온성군 유포면풍서동(美浦面豐西洞)대안비파동(琵琶洞)에는 무장한공산당원삼십여명이 출연하야 동리사람들에게우차(牛車)를 가지고곡식을실으라 위협함으로 위협에못이겨동리 사람들이 우차열대에다가곡식 사십여석을 실코갓다고한다

# 盈德에서 漁船顚覆
## 船夫六名은救出

【盈德】경북영덕군 강구항(江口港)압바다에출어중이던부유명을태운강구리신출(李辛出)의소유어선은지난 이십삼일오전십시경에꼭풍을맛나선체가권복되여어부(漁夫)육명이일홈하고어구금망자(漁具)건부등유실하얏든바동일하오사시경에 영덕면삼사동천인산(面三思洞淺仁山)의 어선이지나다가 익몰한어부를 구출한바주소씨명은다음과갓다고한다

▲被救出者 慶南統營 李主欽 同 高光淑 慶北金泉 李致鳳 盈德三思 申海仲 江口 李辛出 南亭面 鄭漢千 同 重先

# 黃州松林普校 校舍增築陳情

【兼二浦】황해도황주군(黃州郡)송림공립보통학교는 종래

# 豊川에色衣奬勵

【豊川】황해도 송화군 풍해면

# 未開畓地水組稅 作人에게半分要求
## 順南水組蒙利區域地主가

【順川】순남수리조합에서는금년에 미개답지 이십여정보에 대하야단연 조합비를 징수한다는데지주들은 소작인에게 대하야 조합비를반담하라고하며 소작인들은 지주가 개답하야논을 주엇스면 조합비반담하는 것이당연하나 작답을안해주어 벼를심으지못하고 서속을 심엇는데 조합비를 반담하라함은 부당하다하야 소작인노릇을 못하면못하지 조합비는물수업다 주장하야 이문제가장차 어떠케귀결될는지 의문이나 만일소작인이부담하게된다면 수리조합비가 일정보에 대하야 십팔원임으로이십여정보의반분 약이백원 이란돈을 소작인주머니에서 끄내게될것이라고한다

### 豊川 通俗衛生講話會

△時日 一月六日下午七時
△場所 豊川公立普通學校
◇主催 豊川靑年會
◇後援 豊川記者團

###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三千浦支局 位置 慶南三千浦 支局長 金三洙
內金剛支局 位置 淮陽郡長楊面末輝里 支局長 李根東
群仙支局 位置 咸鏡線群仙驛前 支局長 金在寬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分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富寧分局 位置 咸鏡線富寧驛前 分局長 尹興業
遮湖分局 位置 鐵山線遮湖驛前 分局長 張應杓
朝陽川分局 位置 間島朝陽川本町 生醫院 分局長 朱謙吉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販賣所를支局으로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永登浦支局 位置 京釜線永登浦驛前 支局長 徐大泳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販賣所를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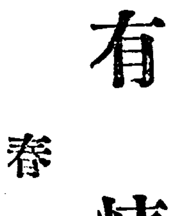
松坪販賣所 位置 鏡城郡漁城面松鄉洞 主任 李東俊
明川驛前販賣所 位置 咸鏡線明川驛前 主任 金鳳石
輪城販賣所 位置 咸鏡線輪城驛前 主任 金鳳熙
阿間販賣所 位置 咸北明川郡阿間市 主任 太一俊
富居販賣所 位置 富寧郡富居面富居洞 主任 朴貞厚

### 謹告

任 韓相奎 (山驛前)

順安支局 記者 金允憲 右新任함
興南支局 記者 韓孟錫 右解任함
退潮分局長 韓榮八 分局位置 咸鏡線退潮驛前
咸興支局 移轉位置 咸興府黃金町一丁目二〇五
梨津支局 記者 南相助 右新任함
杆城支局 記者 金甲龍 集金員 全一燮 右新任함
內金剛支局 總務兼記者 姜秉瑩 記者 朴錫永 記者 李一成 右新任함
牙山支局 屯浦分局長 申泰薰 右新任함
扶餘支局 寫眞班記者 崔壽俊 右新任함
報恩支局 記者 黃圭植 寫眞班記者 孫喜成 右新任함
陝川支局 記者 金光信 記者 李聖器 記者 朴仁紹 寫眞班記者 李景祥 右新任함
慶州支局 移轉位置 慶州邑路西里七一 電話 六六番 右新任함
長興支局 記者 金斗煥 右新任함
姬路販賣所 總務兼通信者 尹敬漢 通信員 金奉顯 通信員 禹漢一 右新任함

# 有情 [76]
春園 作 熊超 畫



집압에 거진 다 가서는 순임은 정임의 팔을 껏던것을 노코 빨리 집으로 뛰어들어갓다。 치마폭을 펄펄거리고 뛰는양에는 어련슬셔 말팔량이 순임의 모습이 남아잇서서 나는 혼자 우섯다。 순임은 정임이가 온다는 깃븐 소식을 한 시각이라도 빨리 그아버지게 권하고 십헛던것이다。

『아부지、주무시우? 정임이가 왓서요。 정임이가 왓습니다』 하고 부르는 소리가 밧게서도 들렷다。

나도 방에 들어서고、정임도 뒤따라 들어서고 로파는 박호로 등건을 두러 들어갓다。

방은 저녁가티 어두엇다。

『순임아 불을 좀 켜렴으나』

하고 최석의 얼굴을 찻느라고 눈을 크게뜨고 고개를숙이며、

『자나。정임이가 왓네』

하고 불넛다。

정임도 겨테 와서 선다。

최석은 대답이 업섯다。

순임이가 초人불을 켜자최석의 얼굴이 환하게 보엿다。

『여보게。이바。자나?』

하고 나는 무서운 예감을 가지면서 최석의 억개를 흔들엇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마는 최석은 시체라하는것을 나는 내 손을 통해서 깨달앗다。

나는 깜작 놀라서 이불을 벗기고 최석의 팔을 차자 맥을 집허보앗다。 거긔는 맥이 업섯다。

나는 최석의 자리옷 가슴을헤치고 귀를 가슴에 대엇다。그 살은 얼음과 가치차고 그 가슴은 고요하엿다。 심장은 뛰기를 그친것이엇다。

나는 최석의 가슴에서 귀를 떼고 일어서면서、

『더 아버지는 돌아가섯다。 네 손으로 눈이나 감겨들여라』

하엿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럿다。

『선생님!』

하고 정임은 권연히 정제할 힘을 일허버린드시 최석의 가슴에 업더젓다。 그리고는 소리를 내어 울엇다。 순임도

『아버지、아버지』

하고 최석의 벼개 겨테 이마를 대고 울엇다。

아라사人로파도 울엇다。

방안에는 오직 울음소리뿐이오 말이 업섯다。 최석은 벌서 이 슬픈 광경도 몰라보는 사람이엇다。

최석이가 자긔의 싸홈을이긔고 죽엇는지、또는 끗까지지다가 죽엇는지 그것은 영원한 비밀이어서 알도리가업섯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하다―그의 의식이 마즈막으로 끗나는 순간에 그의 의식에 떠오른 오직 하나가 정임이엇스리라는것만은。

지금 정임이가 그의 가슴에 업더저 울지마는、정임의 뜨거운 눈물이 그의가슴을 적시건마는 최석의 가슴은 뛸줄을 모른다 이것이 죽엄이란 것이다

뒤에 경찰의가 와서검시한 결과에 의하면최석은 폐염으로알턴결과로 심장마비를、이르킨것이리라고 하엿다。

나는 최석의 장례를끗내고 순임과 정임을 다리고 오려하엿스나 정임은 듯지아니하고 로파와 가티 바이칼촌으로 가버렷다。

그런뒤로는 정임에게서는 일절 음신이 업다。 때때로로파에게서 편지가 오는데 정임은 최석이가 잇던 방에가만히 잇다고만 하엿다。 서투른 영어가 뜻을충분히 발표하지못하는것이엇다。 나는정임에게 안심하고 병을치료하라는 편지도 하고 돈이필요하거든 청구하라는 편지도 하나 영답장이업다。 만일 정임이가 죽엇다는 괴별이오면나는 한번더 시베리아에 가서 둘을가지런히뭇고 두벌무덤이라는 비를세워줄 생각이다。 그러나 나는 정임이나 조선으로 오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최석과 정임에게 대한 내 긔록을 밋고 그두사람에게대한 오해를풀라(끗)


特許 醫學界新發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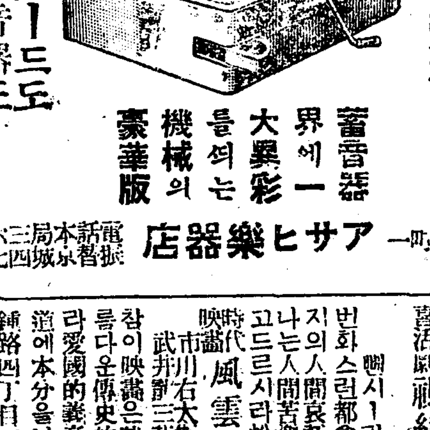
下焦濕冷治療器 發賣開始!

本器의賞讚?

本器應用의原理

三成研究所(內販賣部) 朝鮮京城府苑南洞六十六ノ十一號 振替京城二〇七一二番

アサヒ樂器店特別發賣品



콜럼비아年末特別新發賣機
蓄音器界에一大異彩를씌는機械의豪華版
金三十五圓
콜럼비아의레코ー드도 콜럼비아의蓄音器도 豊富히가추어잇슴니다
京城本町一 アサヒ樂器店 電話本局三六五九 振替京城七四一六

經濟的意義로보아 가장推賞할수잇는 牛煉齒磨(一罐五十錢 一罐二十錢)

料金 階上大人三十錢小人二十錢 階下大人二十錢小人十錢 R、C、A、發聲映畵裝置、常設館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映畵 本版 密林의玉者 全九卷
映畵 H뗀루스、힐바스톤、막크마신 共演
(오름마드)水泳界百米自由形覇者 主演(다ー산)의興趣와(마롯가)
아푸리카密林에서사로잡어온맹수의追力을가진大씨커스映畵! 바스타크라부
◇大都會의斷片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 喜活劇 코콧낫트 全十卷
監督…부랭크보사기氏 主演…막스四兄弟
寫寫와漫畵도잇슴니다
永週!!桑君네로! 시럽는아주머니
豫告!!지길博士와하이드、스키 劇團大陸劇場公演
鍾路樺花洞一三五
桃花劇場

入院室設備完全
外科 肛門病科
醫學博士 朴昌薰
京城樂園洞一二三 電光一五八三番

十二月廿八日낫부터 歲末忘年興行 韓灣名畵公開
每日二回 낫一時 밤七時 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均一
산사映畵作品 喜劇 脫線空中사ー가스 존스돈氏 力演 全 卷
요셔복동서대대히극찬우수운名畵임니다
米國RKO社作品 喜活劇 觀線을끄는다리 全八卷 쌔시ー라보스 主演
번화스러운都會의生活속에가지가지의人間哀話와또한그곳에낫다나는人間苦樂行進曲을끗까지보고드르시라
松竹키네마社特作品 時代映畵 風雲元祿史 全十卷
市川右太衛門、谷崎十郞 武井龍三、花岡菊子 主演
참이映畵은時代劇中에도가장아름다운歷史的事實을말함이요또라愛國的義氣를낫타내이며武士道에本分을보고드르시라
鍾路四丁目 電光
第一劇場


訃告

本校長崔尚鉉氏以宿患今月二十四日午後零時二十分別世茲以告訃

發靷 昭和九年一月三日午前九時
永訣式 於江華合一學校
葬地 江華郡內可面古川里 同日午前十時

昭和八年十二月 日

江華合一學校

崔雲祥氏大夫人金海金氏以宿患陰今月十二日午後一時三十五分別世茲以告訃

癸酉十一月十二日

嗣子 雲祥
二男 興祥
三男 三次
四男 四次
友人總代 尹炳用
同 成錫哲

# 겨울추위를이기고 어린이건강케하는법

## 엷은옷을입고문밧게서 노는습관을기르도록하시오

겨울이되어 날이 추어지면 부모들은 어린이가 추울사라하야 「덥게만하면」 어린이의 위생에가장 조흔긋가티 생각하는것이 보통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춥다고하야 그저어린이를 덥게만하여주는것은 도리어 어린이의 몸에 조치못한 일입니다 목욕덥게하면 그때는조치마는 그것이습관이되면 조곰만더추우면 그때까지의 방한설비(防寒設備)는 아무소용이업시질것입니다

그런까닭에 겨울추위에 어린이를 보호하는 방법은 어린이를 추위에 견디게 습관을 만들어 주는것이 가장현명한 방법입니다 병에 알른아이는 할수업스나 건강한어린이면 될수잇는대로 추위에 견디도록 저항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결국 추위를 막는 가장 조흔방법은 추위를 추위로 생각지안토록 하는것이라고 할수잇습니다

◇ 그러면 그방법은 어떤가。추위를 추위로 생각지 안토록 추위에 대한 저항력을기르는 방법은 어떤가? 제일은 옷문제인데 옷은될수잇는대로 엷게입는 습관을 가지게하여야 될것입니다。추울사라 하고 만히만 입힐생각을 하지마시고 엷은옷을 입이도록넉넉히 견딜수만잇스면 옷은 될수잇는대로 엷게입히도록하야겟습니다

둘재는 늘 거처하는 방안(居室)인데 방안은 견딜수만 잇스면 될수잇는대로 덥지안케하는것이 조흡니다

셋재는 될수잇는대로 밧갓외긔(外氣)가 방안에 들어오도록 하는방법을 생각할필요가 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공연히 방안에만 가두어두지말고 한보더나아가서 어린이들을 문밧게서 뛰어놀도록 하야겟습니다

◇ 사람이 추워하는 원인은주로 피부에 접촉하는 공긔의 온도여하에 관계되는바가 만습니다 그런까닭에날이추워도 추워하지안토록하는방법은 추위에대한각각을 둔하게하는것인데추위에 대한피부의 감각을둔하게하는 방법은주우에말슴드린 세가지입니다。그러나 이세가지 방법만가지면 완전한것이아니니 그러치안코한보더나아가서피부를단련(鍛鍊)하는범을취할필요가잇습니다 피부를 단련하는방법은 엷거나손대로 일정한시간을 방안에 잇게하는것인데 이것도한가지 방법이지마는 또한가지방법은 엷은옷을입고 밧게서 늘게하는것입니다 외긔욕(外氣浴)이라고하는것이 즉이것입니다

어린이가 외긔욕(外氣浴)에의숙하게되면 다음에는 전신마찰(全身摩擦)을 행합니다。이방법은 아조간단합니다。마른세수수건을가지고 온몸을힘을조주어서 문지르면됩니다。우에말한 외긔욕은 수분(數分)내지 수십분동안 해야 하지만흔 마찰은 수분 동안이면 충분합니다 그러고 마른수건으로 하는 마찰에 닉숙하게되면 랭수마찰(冷水摩擦)을시작하면 조흡니다 그러고우에말한여러가지 방법을 실행하면서 체조 유희를 시키는것은 어린이의 건강에도 필요할뿐아니라 추위를막는데도 효과가만습니다

◇ 우에말슴드린것은 피부의저항력을 증신하는방법이지마는 추위는피부로만 들어오는것이 아니라점막(粘膜)으로들어와서 호흡긔를침로하는경우가잇습니다 즉코、입、인후、긔관(氣管)으로들어와서 결국은 폐(肺)로 침입하는것입니다。

호흡긔의 점막으로들어오는 추위를막는방법은 별것이업습니다그저평소부터추위에견되는 습관을가지게하면 됩니다 그런까닭에 보통때는마스크를하지안는것이조흡니다 그러고밤잘때에는 방안을덥게하지안는것이조흡니다 그러나놀론이불속은 차게하지안는것이조흐니 몸이·덥도록 두터운옷을 입히는것은 몸에 해롭지 안습니다

◇ 우에말한것은 어떠유명한 의사가말한 추위를이기는 적극적방법입니다다마는 몸맹이 감긔를걸리던가 몸이 압흘때에는물론 「마스크」를하는것도조코옷을두텁게입는것도물론필요합니다(끗)

# 掛曆注意!

## 陰八月大·九月小로고치시오

선의선물로서 각상점에서보내는 새해의 괘력(掛曆)에 잘못된섬이 잇는것을 총독부인쇄관측소에서 발견하엿다 즉괘력에는 양력시월팔일이 일일로되여잇스나 사실에잇서서 유력구월초하로는 양력십월구일오전령시오분에 시작됨으로 유력구월초하로는 양력시월팔일이아니된다 그럼으로 유력팔월은커지고 구월은적어저야한다 즉양력시월구일이 유력구월초하로날에해당한다 말아서 이런잘못된괘력을가진분은 유력구월은 하로식밀어내리어계산하여가야 날이맛는다는것이다

# 남편이 신용하니 리혼할까요?

문 저는금년이십팔세된녀자이온데 신병으로말미아마 남편에게 이혼을재촉받고 잇습니다 엇지하면 조흘까요 남편에게는 벌서 새로운 애인이 잇답니다 어린것은 하나뿐입니다。이혼을하면 고생살비를청할가요얼마나하면 합당할까요?(京城一女性)

## 살수업스면 리혼이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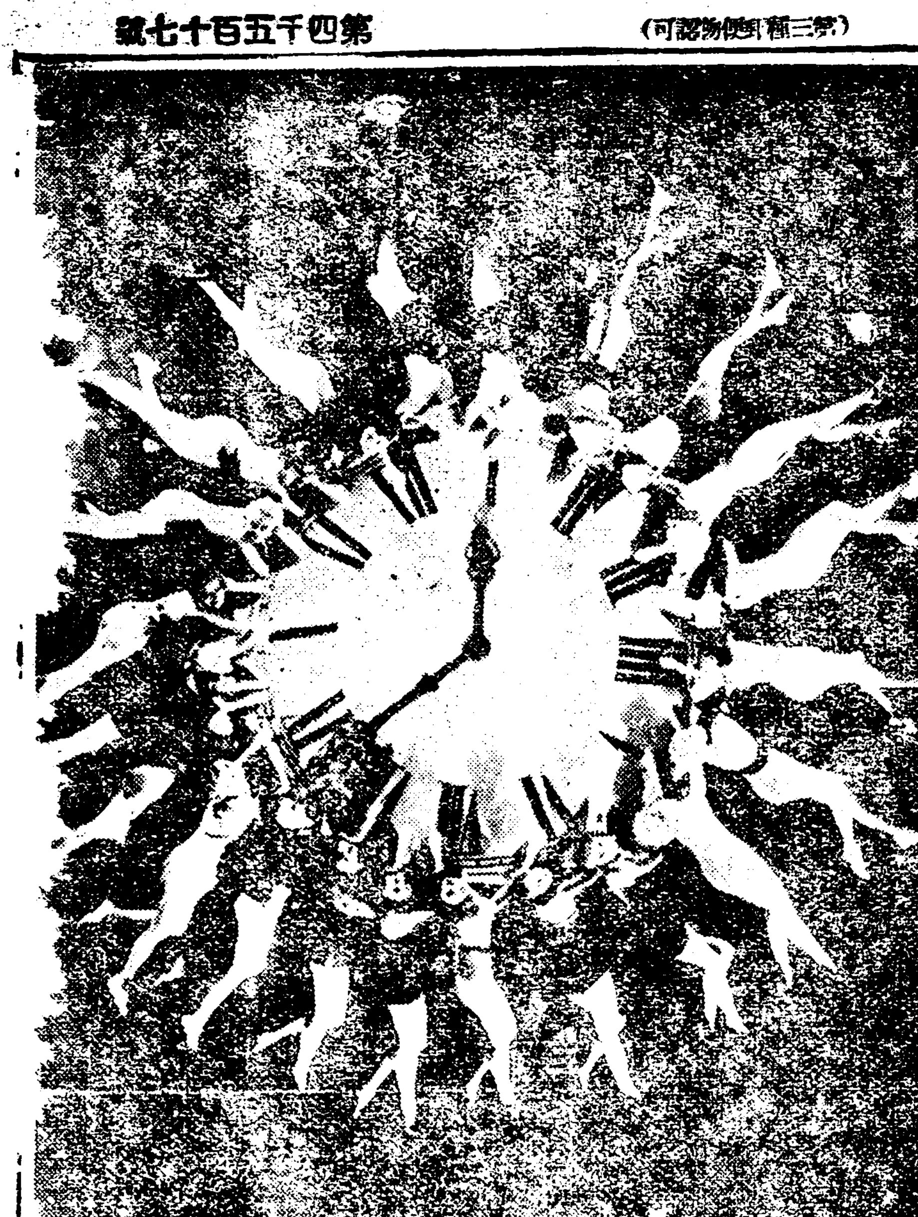
답 신병으로 고생을하는것도 불행한일인데그는로벌미암아 남편에게 리혼까지밧게되다니 남편되는이의무정한말할것도 업거니와 당신의경우도 퍽 딱하게되엇습니다 그러나 이러케 곤란한일이 겹처올때에 마음을일층 든든히가지고 압길을그르치지안토록하는것이 필요할줄생각합니다。리혼문제에대해서는 자세한사정을모르는까닭에 무어라고 말슴드릴수 업습니다마는 밧갓랑반편과 도저히살수업는경우면 리혼을하는것이 무방할줄압니다 왜그런고하면 도저히살수업는사정에잇스면서 그대로 형식적결혼생활을계속한다면 남는것은어느편으로보나 정식적으로손해뿐입니다·그러고생활비의 정도는 당신남편의 재산정도를보아서 할것이나 얼마라고일정한액수를 말슴드릴수는업습니다다당신이 생활해나갈방도와밧갓랑반의재산정도를 보아서적당히청구하시오 그러나밧갓랑반되는이가 일시방탕한맘이나서리혼을강제하는것이라하면 얼마동안기다려 보는것이어떨가합니다(R記者)

# 元教育人民委員長 蘇文豪루氏逝去

## 佛國領『리비이라』에서

【莫斯科廿七日發電通】 蘇聯의現代文學者요 元쏘베트聯邦教育人民委員長루나찰스키氏가 리노아의名勝地 佛國領리비이라에서 客死하엿다는報가二十七日 蘇聯外務人民委員에入電이잇다고 傳한다。氏는享年五十八(一八七五年生)。十五歲때에 키에프의革命的小團體에 加盟하엿고 一八九七年에社會民主黨(一九〇三年브랏셀 第二回大會에서볼쉐비키와멘쉐비키黨이分離하기前까지는 이런名稱을가지고잇섯다)에 入黨後곳檢擧되어 追放의몸이되엇다。一九〇四年末제네바에서 볼쉐비키의機關紙『우페리요드』『푸론레다리아』의 編輯에參加、一九〇五年에는 레닌그라—드에서 『노와야·지즈니』紙의 出版에參加하엿다 反動時代(一九〇五年以後)에는다시國外에서 다복조호며알렉선스키等의所謂『우페리요드』派에加入하야 볼쉐비키의 프랙쇼과對立하엿다 그러나 大戰의부러 決定的으로 인터내쇼날리즘에復歸하야 一九一七年二月의 게렌스키等革命後 레닌그라드에歸還하엿다。그리하야 社會民主黨第八回大會에서 볼쉐비키黨에加盟하야 十月革命後 教育人民委員長이되엇다가 一九二九年에 辭職이엿다。

그는敎育家 創作家 批評家 藝術理論家로 敎育論에는『國民敎育의諸問題』『쏘베트·러시아의敎育』『레닌과敎育』等이잇고 藝術理論 方面에는 『藝術에對한 對話』『藝術과革命』『演劇과革命』『實證美學의 基礎』『맑스主義藝術理論』『룻소와맑스』等이잇고 創作에는『마스크를쓴思想』戲曲『解放된돈·키호테』其他創作集二卷等著書가잇다 換近政治도는 藝術方面에잇서서 敎化되기미 가잇서서失意의生活을하고잇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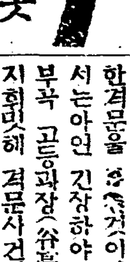


녀자!녀자!녀자! 깨나 자나 녀자! 녀자! 녀자! 자나깨나 녀자가 생활의 안밧글 차고도는 미국사회 생활을 풍자한것이이사지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상연될 영화의 일장면이라 고합니다。부인에대한 례의를 중대한 의무로생각하는 양키ㅣ가 녀성에게끌 머리를 알른다고 풍자한 것이랍니다。

# 科學小話

## 鼓動하는人造心臟

산人間心臟과가리 鼓動하는 『人造心臟』그것은벌서 科學小說의題材가아니라 現實에存在하야 現在그鼓動을치고잇다 製作者는 米國마사추셋츠記念病院렌트겐科長 죠—지·레빙博士로서 先般 보스톤市에서 뉴—잉그랜드·렌트겐光線學會에서公表한것이다 그때레빙博士가출나온人造心臟에對하야 詳細히說明한後 徐徐히단추를 눌은즉 卓上面제되엿箱子에X光線이照射되어 그中에서各一個식人間의心臟그대로의것이鼓動되는것이보엿다 十個의心臟中九個는諸種의病든心臟이고 最後의하나만이 健全한心臟이엇다 레빙博士는 極히謙遜한態度로 다음과가티말하엿다 『從來活動中의 心臟의研究를爲하여는 산人間을 렌트겐光線앞헤세울수밧게 딴方法이업섯는데 그것은長時間에亘하야 實驗할수업다 지금이人造心臟을使用하면 醫科校教授들은教授上 매우利便할것이다 그러나 人造心臟의効績은그것만은아니다 오래지안어서 생겨날 人造人間 即人間의손에서創造될 生命에의一階段가 아니라고 누가斷定할것인가』




# 가정에서각긔곳치는법

문 십구세학생이올시다 격중 영양부족으로인지 다리가무거우며 새벽이면 쥐가자조나고 다리를구르면 자리가완연하니 「각기」일듯합니다 선생님 병명과 간단한치료방법을 하교하십을고대하나이다 (당주녹일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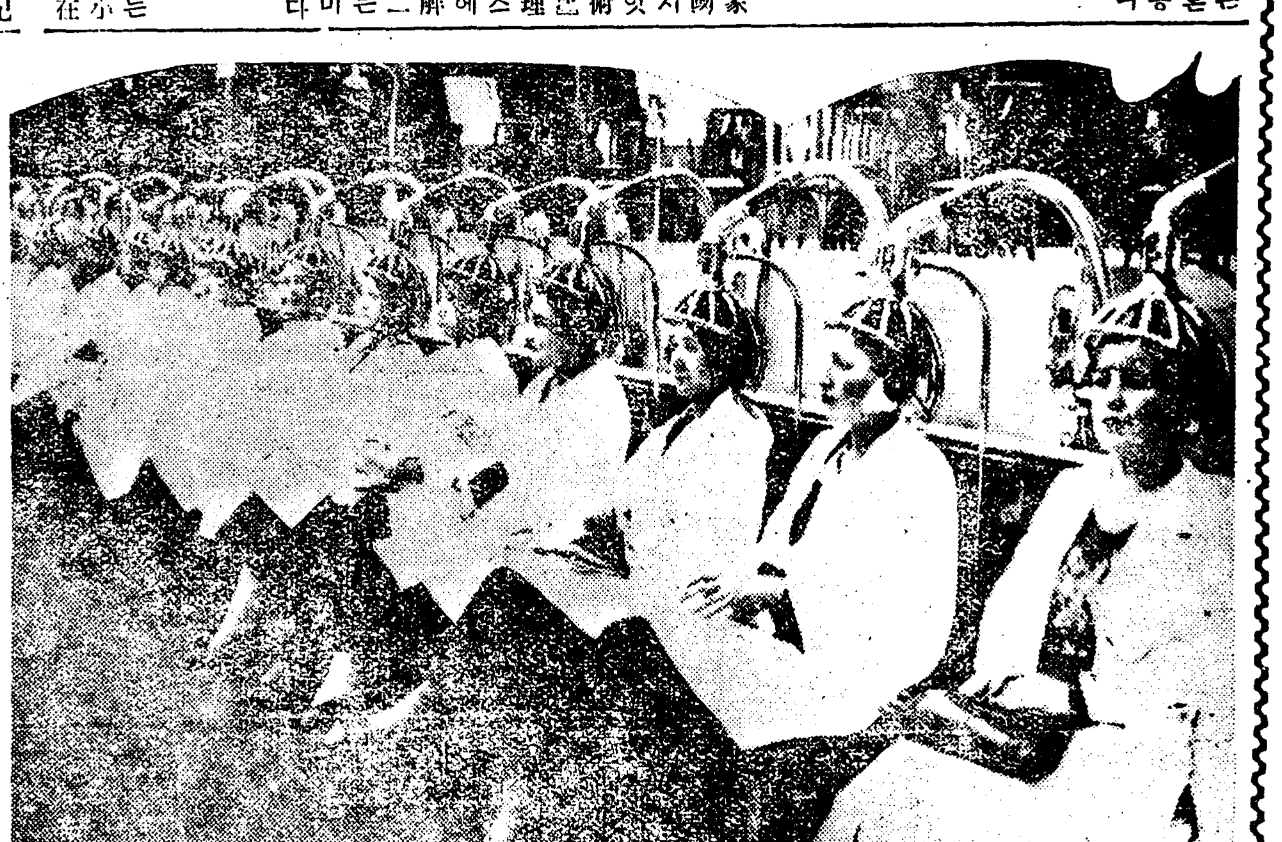
답 말삼하신 증세로미루어보아 각기인것이 틀림업습니다 가정적치료로는 현미 보리 팟 콩등의 잡곡밥을 자시고 시금치가튼 야채 일년감가튼 과일 그밧게연유 우유 개란 등을자서보십시요내복하는 약으로는 비타민b제를 복용하면 치료가됩니다

# 귀쏘고코가 매키는데요?

문 사십팔세된 남자이온데 사년전 귀병을앓은일이 잇섯는데 그때귀에서 갈색 피가뭉친것이 나와슴니다 그후 그것이머젓기로안심하고 잇섯더니 또 때때로귀가쏘고 귀에서 이상한소리가 납니다 한달전에 어떤의사에게 진찰을하엿더니 고막이 조들어갓다고 합디다 그러고 소생은 어려서부터 코가맥혀서 그때문에 잠도잘못자는일이 잇섯는데 근년에는 잠을못잘정도까지는 안호나 역시코가 매킵니다 코매키는것과 귀아픈것과 무슨관계가잇는것입니까 완치할법과 그원인을 가르켜주십시오 (黃海一讀者)

답 자세히긔록하신것을 종합하야보면 코속에갑개골(甲介骨)의비대로나 혹은비용(鼻茸)이라는것으로 비색감이잇는동시에 코와중이(中耳)사이에통한길 즉구씨관(歐氏管)이라는 길이막혀서 고막이약간 내함(內陷)됨으로 이명(耳鳴)난청(難聽)이 잇는가합니다이병은 약보다도 이비인후전문의사의 긔술적 치료를바더야 치료가되겟습니다 (醫師鄭起燮)

◇ ◇ ◇



미용사세계선수권대회…류행의도시파리에서 구주각국에서 미용사(美容師)를모아기지고 누구가가장미인을 일층첨단적으로 아름답게할수잇는가하는 선수권대회를 열엇는데 이것은 거게압헤선 미모델들

# 海州突擊隊事件 池鳳洙等九名送局

## 具體的事實은極秘密

【海州】 지난가을 『싸베—트러시아』 혁명긔념일을당하야해주경찰서(海州署) 고등계에서는 만일을념려하야 비상경게를 하고잇든중 바로혁명긔념일밤 긔묘하게도 경긔선을 돌파하고해주시내 요처에 내용이 자못과격한격문을 뿌린것이잇서 동서에서는아연 긴장하야 황해도경찰부곡 고등과장(谷高等課長)의 지휘밋헤 격문사건의 혐의자로 해주정성연안(延安)등지에서지봉수(池鳳洙)(三〇)외청년십여명을검거하고 홍려(洪稆)고등계주임과 경찰부문(文)형사부장의손으로 극비밀리에 취조를하든중의외에도돌격대(突擊隊)라는비밀결사 사건이탄로되자 더욱긴장하야 이사건과 관계업는강경훈(姜敬勳)(二〇)등청년수명은석방하고 남어지 지봉수외륙명은 엄중한취조를 진행중이든바드디어그취조가완료되여지난이십팔일에 치안유지법 위반등죄명으로서 지봉수등 다음칠명은신체구속으로리형균(李瀅均)외일명은불구속으로일건서류와함께 해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넘기엿다 이제이 사건의내용에대해서는 일체비밀에 붓침으로진상을알수업스나대략한것을들으면다음과갓다

### ◇送局者氏名

▲海州邑上町東京留學生 田在浩(二九) ▲南旭町 無職 池鳳洙(三〇) ▲同南旭町印刷職工 朴東瀚(二〇) ▲同南本町 東京留學生 吳晦根(二〇) ▲同北旭町 同上 吳應鎬(二〇) ▲同北本町 無職 金和浩(二二) ▲同郡西面德山里 同上 金春甫(三一)(以上拘束) ▲延安邑延城里 印刷職工 姜敬勳(二〇) ▲海州邑南旭町 商業 李瀅均(一九)(以上不拘束)

## 檄文事件은 個人의所爲

### 解消以後의事實

싸베트러시아 혁명긔렴일을 긔하야 해주시내요처에 격문을뿌처엇든것으로 말미암아 돌격대라는 결사조직이 잇섯든것이탈로되엇스나 이격문을 뿌친것은 비밀결사「돌격대」의 해소이후 이기때문에 이결사 조직체에서한것이아니라 그조직의 리—더격인든 지봉수외 수인이개인으로 협의한후 주로지봉수개인이한것이라한다

# 廣石川에모히여 突擊隊組織

## 隊員中의「스파이」淸算코자 一週後에解消斷行

이사건의 관계자의 대부분은 『유물철학(唯物哲學)』과 사회과학(社會科學)에대한서적을탐독하며공산주의운동을연구하고잇든것은물론이어니와권에잇서서 흥은학생운동과 정치운동에참가하야 일한든일이잇는청년들로서 금념에이르러 해주적색 로동조합(海州赤色勞組)사건과 반제동맹(反帝同盟)사건거로 만흔의식 분자들이혼후해주를 중심으로한 지하운동이돈세상태에 잇는것을 개탄하고그후게 조직을가진하야 해주를중심으로 활발하게 지하운동을전개코저 지난구월 초순경에 전재호(田在浩)등칠명이사람의왕내가적은 해주시외 광석천(廣石川)부근에 비밀히회합하야 공산주의 운동의 저수지적 목적으로한 비밀결사 돌격대(突擊隊)를 조직하엿든 것이다그런데이대원중의 한사람이「스파이」의 혐의가 농후하야실천도보기권에 희생될것을 각오하고조직된지 약일주일후인 구월중순경에 이르러「스파이」를 청산한외 재조직을 권제로동조식울해소하엿든것이라한다

# 今日의라듸오

## 十二月三十一日(日曜)

### 第二放送 (波長四九一米)

◇午後〇時五分 氣象通報
◇同〇時五〇分 俗謠
一、時調
二、달거리
三、赤壁歌
張香蘭 李眞紅

◇同六時 童謠
一、齊唱 딸 기
二、同 두루미
三、獨唱 어미새
四、同 암닭세마리
五、齊唱 뜸북새
六、同 양양범버궁
七、獨唱 숨흔밥
八、同 시골길
九、齊唱 동리의원
十、同 개고리
東部隣保講習所 피아노伴奏 朴龍綿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懊惱와宗敎 金泰洽
◇同七時 뉴—스、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라디오드라마 叛逆第一條(全二景) —金雲汀作— 時 現代섯달그믐밤 第一景 吳順泳의집 第二景 카페—부라질 指揮 金雲汀 第二放送課員一同
◇同八時二〇分 레코—드音樂 (流行歌)
◇同八時三〇分 唱歌調 一、短歌 二、唱劇調 春香傳中 離別歌 李翠香 鼓手 池龍九
◇同九時 獨唱과 피아노獨奏
一、피아노獨奏 우—드孃 로—만스…슈—망作曲
二、獨唱……대메론孃 거룩한밤……에당作曲
三、피아노獨奏…우—드孃 트리니티챠임스…데키作曲
四、二重唱………대메론孃 하나님은나의牧者시니…스마—트作曲
五、獨唱 영 울녀라요란스런鐘아…구노作曲
◇同九時三〇分(東) 時報 氣象通報
◇同九時四五分 滿洲로부터中繼 滿洲國의農業事情 滿洲國에가을觀察하고서(三) 崔昌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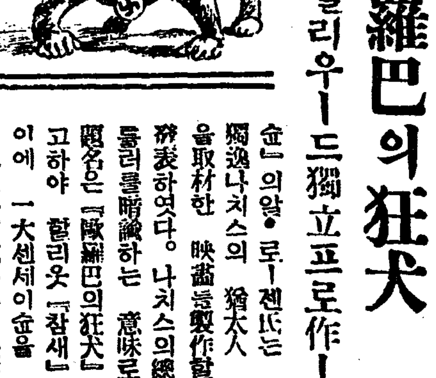
### 第一放送

十二月三十一日(日曜) (波長三三三米)

◇午後〇時五〇分 다디오바라예티 피나—레三三年
一、歲末脫退
二、三三年作
三、結婚行進曲의解消
四、金曜市場
五、三原山에
六、有閑마담行狀記
七、벤—나스의行方
花井 蘭郞 丘 龍兒 柳亭 燕路 南 敏夫 外
◇同六時 童話劇 野箭吳爺 新舞踊研究所童話劇部
◇同六時二五分 歲末講座 (四)스포—츠界의回顧 松村 正彦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東) 謠曲 老松
◇同八時二〇分 (東) 舞臺劇 東京中村歌右衛門宅에서中繼 新歌舞伎 速度諫言 河竹默阿彌作 十八番內 勸進帳 西人能鑑 『配 役』 武藏坊辨慶 松本幸四郞 右大將平宗盛 坂東彥三郞
◇同九時三〇分 (東) 時報 大晦日特輯
◇同一〇時分 (東) 歌謠曲 (其一)
◇午後一〇時一五分 (東) 落語 가조레츠 林家正藏
◇同一〇時三五分 (東) 歌謠曲 (其二)
◇同一〇時五〇分 (東) 落語 大晦日
◇同一一時一〇分 (東) 歌謠曲 (其三)
◇自同一一時五五分 至午前〇時四〇分 (東) 除夜의鐘 —京都市外東山眞如堂附近에서中繼—

# 『히틀러—』를暗諭하는 映畫 歐羅巴의狂犬

## —헐리우—드獨立프로作—



米國할리·웃發聯合郵信에依하면 『할리·웃獨立프로덕숀』의 알·로—젠氏는 最近獨逸나치스의 猶太人 탄압을取材한 映畫를製作할것을 發表하엿다。나치스의總帥히틀러를暗諭하는 意味로映畫題名은『歐羅巴의狂犬』이라고하야 할리웃『참새』들사이에 一大센세이슌을 일으키고잇다。或다른 映畫製作者들이 너무 煽動的이라고 氏에게 忠告하는 일도잇다한다 本人알·로—젠氏는 泰然히 다음과가티말하고잇다。『내가 지금 問題되어잇는 猶太人 問題를 主題로하는데 對하야 或은 反對하는 사람도 잇스나 나는나의 計劃을決코고치부다고생각지안는다。從來에도 탄압자라든가 社會的頑迷者流의罪惡을 取扱한演劇이며映畫는 數업시만치안은가。그것이 낫흔까닭은업다 나는히틀러의行事를 당북끄러너을心算이다。』米國의錚錚한猶太人들도 支持하여주고 猶太人의 映畫監督者도 스토리의 擇定에參加하고잇다

# 少年小說 ◆별벽새◆ 14

## 누이(1)

田榮澤

재생 재판소를 거처서 개싱으로 온 순길과 윤찬은감옥이라는것이 그리 무서운데가 아닌술을 알고 비로소안심하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네와 가튼 아이들이 퍽만코 또더헤이 형무소장이 자네의지난일을 다듯고 퍽동정하고 기특하게 녀여서『의조혼동무』라고하면서 퍽친절하게 해주고또 거처나 옷식이나 깨끗하게하고 위생적이고 규모잇게하는것이 자기네집보다도 훨신나앗습니다 그뿐아니라 듣든바와가치 일도하지만 공부도써 잘시겨주는것이 잇습니다 그레서 월사금도 안밧고 매여주고 가라처주는데 둘어온것을 도리여 다행으로 생각하엿습니다 그리고 나제는 공부하고 일하고 동무들하고놀기에 사실아모생각이업시 지나게되엿습니다

그러나 밤에 잘라고자리에 누으면 혹자다가 밤중에깨면 생각을 하게되고 생각하면욤덕이 갑덕이의 행사가 고약한것이 분하고 그리고 집생각을하면 자연 마음이 언잔엇슴니다。순길은 불상한홀어니생각、윤찬은 앓는아버지와 불상한어머니、고생하는 형과 누이 생각을하고는 늘 울엇습니다。

그중에도 윤찬은 누구보다도 제일 명찬이(누이)일을생각하면 눈물이나서 견딜수가 업섯습니다。더욱이 이번에자기가 재판을적에 섬어하든일 자기를위하야 몸시걱정할것을 생각하야 개성에와서 즉시잘잇노라는 편지를 간단이햇습니다。그래서 윤찬은 날마다 날마다 누이의 회답오기만기다렷습니다。

명찬은 지난겨울에 야학에 다녀서 이내언문을 깨치고부처쓰기도 곤란합니다。그래서볼에 공장에가서도 잇다금 집으로 편지를해서 윤찬이 바다보고햇습니다。그래서 윤찬은 누이의굽게곽곽박아쓴 글시를 바다보기가 제일소원이엇습니다。

윤찬은 열네살입니다 사변권에 윤찬이 서당에 다니다가 학교에 입학할적에 명찬이도 공부하고십허서 퍽졸랏스나 종내안보냇습니다 형찬이올바가 다닐적에도 동리양선달네 딸이 다니는것을보고 저도 공부하고십허서 그랫스나 아버지가 완고해서『계집애가 공부는 해서 무얼하나 집에서 바누질이나 배우지!』하면서 안보냇다고합니다 윤찬이다닐적에는 남들이다보내니 보낼까하는 생각도 햇스나그때는벌서 그집형세가 기우러진때라 월사금당하기가어워서려찬이 없도 채출혼하고 일하게된판이라 아모리 조흔데야 될까닭이 업섯습니다。

그러나 명찬은 어떠케공부를하고십헛든지 지난해봄에아버지 어머니허락도업시 동생을따라서 학교에가서 며출다니엇습니다 입학금은 윤의 오촌네집에서 어더다가 내엿스나 아버지한테 며출다니다가 아버지한테 매를맛고그만못다니게 되엇습니다 그후에도 맛지도안는 형찬이 배우든무근 책을 가지고숨어서 며츨다니다가 이번에는 형찬에게 매를단단히 맛젓습니다 본래성미가 사나운 형찬은 부모의 말안드고 다니지말라는 학교에다닌다고 사정업시 몹시때리는것이엇습니다。

그래도 영찬이 공부하고서픈열심은 조금도변치아니햇습니다 지난겨울에는 웃예회당에서 야학을한다고해서 동리아이들하고 윤찬이따라 부지런이 다녓습니다 사흘재되는 날밤에 몹시추운데 갓다오다가 길에서 올바를 만낫습니다 형찬은 닷자꼿자로 영찬의머리채를 잡아채서 게천는구령이에 처박고

「이년 커다란계집애가 밤에 어델다녀」

하고 발길로 함브루내려찌엇습니다 이때에 윤찬이 울면서 재발빌어 말녀서 집으로 드려간일이잇섯습니다

# 어머니생각

積山 丁南綉

고요한밤 서러워 눈물홈니며
어제낫에 온편지 가삼에품고
멀니계신 어머니 불너보왓조

◇ ◇

귀기우려 드르니ㅣ 문풍지소래
잘자느냐 잘크느냐 못난소래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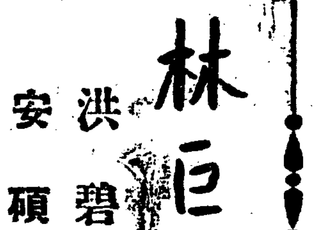
어머니야 어머니 쳐죽보서요
지지래기 홈적을 내못참고서
애쯧는듯 서러워 몸부림하네

◇ ◇

주룸잡고 흰옷머리 나붓기면서
차자왓조 문ㅜ넘에 흰눈날녀요

# 林巨正傳 (289)

洪碧初 作 安碩柱 畫



## 리봉학이 (一의一四)

감사가 뎐최고과법(殿最考課法)을 봉학이에게 들려주엇다 공번되고 밝고 청렴하고 부지런하면 이는 선치수령(善治守令)이요 탐하고 포학하고 게을르고 용렬하면 이는 악치수령(惡治守令)이니그고을의 전야(田野)가개척되고 호구(戶口)가 증가되고 부역(賦役)이 고르고 학교가 닐어나고 송사가 간단하나 뎐야가 진황(陳荒)되고 호구가 감손(減損)되고 부역이 번거하고 학교가 폐해지고 송사가 정체(停滯)되느냐 이로써 선치의최(最)와 악치의뎐(殿)이 서로 달른데 다섯번고과에 오상(五上)이요 열번고과에 십상(十上)이면 선치수령으로 뽑히어 관직(官職)이 올르는법이다 이와가튼 수령노릇하는사람의 반듯이 알어야할일을 감사가 말해주느라고 말이 길어서 봉학이는 선화당에 오래잇섯다 봉학이가 처소에 나려오니 계향이가 마저드려 웃옷을 벗가고 부채질해주며

「사또를 뫼시고 무슨이야기를 그러케 오래하엿소」

하고 물엇다

「사또께 여러가지 말슴을들엇다」

「적의를 가기실타고 말슴엿주섯소」

「가기실흐면결 실타구 엿줍지조라구 엿줄까」

「사또께서 꾸중안하십듸까」

「너를 못니저한다구 꾸중하시드라」

「나리가 나를 못니저하시든가요 나는 몰랏지」

하고 계향이가 해해 우섯다

「웃지말아 속상한다」

「내가 우서서 될일이 안입니까」

「나한구 멀어지는게 조하서 우슴이 나오느냐」

「왜 떨어져요 나는 날하갈텐데」

「네맘대두 될하오구 내맘대루 꿉꾸가면 걱정이업겟다」

「내가 딸하갈테니 걱정마세요」

「기저(妓籍)은두가 업새준다드냐」

「현방나리가 업새준다구 장담하십드다」

「형방이 업새수 잇스면 내가 벌서 업새겟다 현상님 고지듯지말아」

「현상님이 아니에요 내열부터 열흘동안만 나는 찾지마세요」

「형방이 무슨소리를 햇는지 몰으겟다만 필경나를 놀릴라구하는게니 속지말구 가만잇거라」

「나도 형방나리 거짓말에속아서 놀사람이아니에요」

「열흘동안에 무얼 엇더케한단말이냐」

「내일부터 병탈하고 잇다가 반신불수되엿다고 소지를올리면 시사를 떼어준다고하섯서요」

「기적에잇는 기생을 형방맘대루 떼구달쿠 한닷말이냐 참말 반신불수가 되엇드라두 시사를 떼구안떼는것은 사또처분에 달녓다」

「누가 그걸 몰은다나요ㅡ」

「그따위 야른괴에 사또가속으실낭반이냐」

「사또께서 형방나리에게 말슴 계섯답니다」

「그게 형방의 거짓말이다」

「그러케 의심날고 두고 보세요」

「사또께서 너들어 이러케이러케해서 나를 속여라하고 말슴하실듯하냐」

「이러케이러케하는것은 형방나리와 내가 생각한것이지 사또말슴이아니에요」

「그럼 사또께서는 무어라구 말슴하섯드냐」

「나를 나리주어보냇스면 조흘듯한 어훈에 기시드래요ㅡ」

감사의 자상함으로 자긔의 정곡(情曲)을 통속하고 그런말씀 하섯슬른지 몰으거니 봉학이는 속으로 생각하엿다

「형방이 언제 그런말을하드냐」

「앗가 여긔오서서 한참거시다 가섯세요ㅡ」

「나보구 이야기하려구 기다렷단말이냐 그럼 내가 가서 좀 자세이 물어보까」

「나리터러는 말슴말고 참말병이난체하고 집으로나가라고 말슴합되다 나리는 몸은런체해무시요」

「무슨 독가비노릇인지 몰으겟다 너터러 나를 속이렌」

「귀신방도 차차 작별할테니까 독가비노릇도 즈지요」

하고 계향이가 또 해해웃는데 웃·웃시말니고 핀잔주든 봉학이가 이번에는 계향이를 날하ㅎ 그래우섯다

乳酸菌の親玉 松の露